

석사학위논문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연구

지도교수 양진건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현금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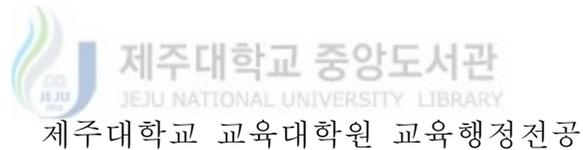
2003년 8월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연구

지도교수 양 진 건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5 월 일



제출자 현 금 순

현 금 순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3년 7 월 일

심사위원장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국문초록>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 연구

현 금 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지도교수 양진건

본 연구는 교육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교육투자를 경제적 효과면에서 조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교육투자에 대한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대표적인 관점인 근대화 이론과 인적자본론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둘째, 교육 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해 제주도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학교급별, 성별, 경력별,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밝힌다.

본 논문에서 설정한 연구 목적과 내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설문지 조사를 하였다. .

표집대상은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62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그 중 성실하게 응답한 560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처리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으로 자료를 처리하고 사후검증으로는 Scheffe 검증을 실시하여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및 교사들의 인지도 조사로 얻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면에서 교사들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 본 논문은 2003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인적자원을 이용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교육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둘째, 교사들은 교육투자와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사회적 부와 소득증대를 가져온다는 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교사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교육에 대한 투자로 고도의 기술을 가진 인적자원으로 생산성이 증가되고 이로 인해 개인의 소득증대뿐 아니라 사회의 소득증대와 분배에 기여하고 있다고 믿고 있음을 입증해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비판론의 영역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긍정적이지 않으며 취업시 학위나 졸업장 중시보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선이 되어야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인적자본을 형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교육재정 투자의 순위 결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외부편익 효과에서는 교사들은 교육에 대한 투자확대가 사회전반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사회 전반적인 문제해결과 정치·경제 체제제반에 대해 안정을 유지해준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투자로 인해 사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사회복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이로 인해 정치·경제에 안정을 유지해주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교육투자는 고도의 기술로 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경제 성장을 가져오게 되고 그로 인해 개인 및 사회적 부를 형성해서 사회 전반의 복지를 향상시켜 정치·경제에 안정을 가져온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해서 교육의 효용성 및 정당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교육투자는 인적자본론에 근거하여 교육비를 일종의 투자로 보고 교육투자를 통해 개인의 생애소득이 향상되며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본다면 국가차원에서 좀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인적자원을 형성하기 위해 학교 교육에 있어 합리적인 투자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사교육비가 아닌 공교육으로의 합리적인 재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 그에 알맞게 지역교육계획의 틀 속에서 교육투자계획 및 재정의 효율적인 분배 운영에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교육투자의 효율적인 분배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전문적인 인적자원을 배출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의 내용 4
- 3.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5

II. 이론적 배경

- 1. 교육투자에 대한 관점 6
- 2.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 15
- 3.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 21
- 4. 선행연구 27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29
- 2. 측정도구 및 내용 30
- 3. 자료처리 30

IV. 조사결과 및 해석

- 1. 경제성장 효과에 대한 인식 32
- 2. 소득증대 분배 효과에 대한 인식 38
- 3. 인간자본론에 대한 인식 43
- 4. 비판론에 대한 인식 62
- 5. 외부편익 효과에 대한 인식 70

V. 요약 및 결론

- 1. 요약 76
- 2. 결론 79

참고문헌 82

<Abstract> 85

<부록 : 설문지> 87

그림목차

<그림1> 선발 가설론	11
--------------------	----

표 목차

<표 1> 우리나라 교육투자 수익률	24
<표Ⅲ-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9
<표Ⅲ-2> 조사도구의 내용	31
<표Ⅳ-1> 미래 기대에 부응한 경제적 수익을 위해 교육투자 정도	32
<표Ⅳ-2> 취업구조 변화에 적응력 정도	34
<표Ⅳ-3> 사회적 부 증식의 공헌 정도	35
<표Ⅳ-4>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에 중추적 기능 정도	37
<표Ⅳ-5> 수준 높은 교육으로 인한 국민 소득 수준 향상 정도	39
<표Ⅳ-6> 사회적 부와 소득 증대 정도	40
<표Ⅳ-7> 장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의 수단 정도	42
<표Ⅳ-8> 노동의 생산질 향상 정도	43
<표Ⅳ-9> 경제 성장의 원천	45
<표Ⅳ-10> 취학률과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	46
<표Ⅳ-11> 개인의 소득증대에의 기여	48
<표Ⅳ-12>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49
<표Ⅳ-13> 투자비용에 대한 경제적 회수 정도	51
<표Ⅳ-14> 학력에 따른 임금의 차이	52
<표Ⅳ-15> 고학력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 정도	54
<표Ⅳ-16> 경제발전을 위한 직업교육의 강화 필요성	55
<표Ⅳ-17> 선진국의 교육이론과 실제 도입·적용	57
<표Ⅳ-18> 사회전반의 생산성 향상	58
<표Ⅳ-19> 평등한 사회 구조에 기여	60
<표Ⅳ-20> 근대적인 사고 방식 함양	61
<표Ⅳ-21> 학생선발 장치	63
<표Ⅳ-22> 학위 소유 여부나 졸업장 중시	64
<표Ⅳ-23> 기존의 사회질서 정당화	66
<표Ⅳ-24> 문화적 다양성 추구에 기여 정도	67
<표Ⅳ-25> 엘리트 우월감과 사회발전 저해성	69
<표Ⅳ-26> 사회전반의 복지 향상	70
<표Ⅳ-27> 지역주민에게 혜택과 편익 제공 정도	72
<표Ⅳ-28> 사회 전반적인 문제해결과 정치·경제 체제 제반 안정 정도	7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사회에서의 교육은 주로 국민 개개인의 문제였으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교육은 국가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국민교육이 국가 장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지식 기반 사회를 이끌고 나갈 인재의 양성과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창출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토목공사 없이 집을 세울 수 없는 것처럼 교육에 대한 투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은 1957년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발사에 큰 충격을 받고 ‘국가방위교육법’을 제정하여 엄청난 예산을 퍼부었다. 기술 패배는 곧 교육 패배라고 하면서 수학, 과학, 외국어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그 결과 미국은 우주 경쟁에서 소련을 따라잡고 한발 앞서게 되었다. 미국에서의 교육 개혁이란 다른 아닌 과감한 교육 투자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80년대 고도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것은 지식, 기술, 능력을 갖춘 인간자원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계화, 지식기반 경제에 적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 양성에 교육의 중점을 두고 많은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였다. 1982년부터 교육세가 신설되어 교육투자에 정책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2001년도의 교육 세출 예산액도 전년대비 1.5%가 증가한 20조 188억이었다. 그러나 정부나 국민들이 합심하여 국가의 교육예산을 더 획기적으로 증액하여 교육적 투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을 바꾸고 교육부장관을 총리직으로 격상하는 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01년 11월 15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14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전략 분야 인력 양성 종합 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종합계획에서 국가 전략 분야는 과학기술과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분야로 세계 수준의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2005년까지 2조 2천 400억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국가 재정을 투자할 예정이다.¹⁾

이렇게 교육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제 교육투자와 경제적 효과의 관계는 매우 당연한 관계로 이해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논리로 자리잡은 지 이미 오래 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때로 교육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교육의 논리와 상충되어 교육계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주동초등학교 교감 오태열은 교육이 경제 논리에 서게 되면, 교육 문제의 해결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방법을 채택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투자는 자본의 회임 기간이 길고 정신적 영역을 다루고 있어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경제 관료의 입장에서 보면 골치 아픈 일이다.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자연히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 본질을 추구해야 할 교육 논리가 항상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에 의해 훼손되거나 제약을 받아왔다고 말하고 있다.²⁾ 심지어 경제학자를 사이비 교육전문가³⁾라고 지적하면서 경제학자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정책이 경제적 논리로만 교육을 보는 것은 교육적 의미를 상실하게 되므로 교육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을 혼합한 교육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이러한 갈등은 정부의 교육정책에서만 아니라 자치단체 수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라는 새로운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 교육계의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른바 “국제자유도시”란 사람, 자본 및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장소로서,

1) 황홍규(2002), “왜 국가전략 분야 인력양성인가”, 교육마당21, p.35.

2) 한라일보, “교육은 교육논리로.” : 2003년 4월15일, p.8.

3) 교육소식지 제 91호, “경제학자에게.” : 2002년 12월20, p.1.

결과적으로 최적의 기업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국내외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위치를 활용하고 세계 경제에서의 역할을 위해 한국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서비스 산업의 질을 개선하면서 시장 개방을 위한 개혁을 채택하고 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경제원리로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창조적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선도자적 개념으로 제안되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분명히 제주도는 근본적인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교육을 새롭게 체계화하기 위한 논의가 제기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교육의 역사는 교육체제라는 것이 각 공동체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맥락과 결코 무관치 않음을 보여준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 제주도가 제안하고 있는 교육부문의 여러 계획안들은 바로 그런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라 외국대학 설립 및 운영요건 완화, 외국인의 초·중등교원 임용 확대, 초·중등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 초·중등 자율학교의 자율권 확대, 교육재정지원 확대와 같은 여러 가지 계획안들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계획안들은 기존의 제주교육 환경을 대폭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내용들로서 막대한 교육투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과제들이다. 이제 제주도의 교육투자는 국제자유도시라는 경제적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여도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안들을 둘러싼 열띤 공방이 벌써부터 뜨거운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갈등으로 자칫 지역사회가 분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없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교사들은 교육 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교육 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 분석을 통해 교육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발전을 위해 교육 투자를 경

제적 효과면에서 조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내용

21세기 무한 경쟁시대를 살아갈 우리의 미래가 한마디로 인적자원개발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해 내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교육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교육비를 포함한 2002년 우리나라의 총 교육비 지출액이 국내총생산(GDP)의 10.5%인 62조7,000억원 규모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교육투자의 효율성은 주요 국가들 중에서 하위권을 맴돈다.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2002년도 예산개요’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한해동안 정부 교육예산(28조1,000억원)과 학부모 부담 납부금(17조3,000억원) 등을 합친 공교육비는 GDP의 7.6%인 45조7,000억원이다. 이 같은 비율은 미국(GDP 6.4%·98년 기준), 일본(4.7%), 프랑스(6.2%) 등 주요 선진국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며,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추정한 GDP대비 사교육비 추정 규모(2.9%)까지 감안하면 한국 경제의 올해 총 교육비 지출액은 GDP의 10.5%인 62조7,000억원로 추정됐다.

기획예산처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대비 교육재정 규모는 2000년까지 4.3%에 머물렀으나, 2001년부터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상향 조정하고 교육세를 확충하면서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우리나라의 총 교육비 규모는 GDP 대비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투자 효율성은 지나치게 낮아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LG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국제비교로 본 교육투자 효율성’ 분석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투자 효율성 지수’는 8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대상 23개 회원국 중에서 19위에 머물렀다.

‘교육투자 효율성 지수’는 OECD에서 발표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수학 및 과학성적 합계와 GDP대비 교육투자비용의 비율을 지수화해 산출한 것으로, 네덜란드(132)와 일본(131), 체코(121), 아일랜드(121)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한

국과 함께 미국(86), 스웨덴(84), 덴마크(78) 등은 교육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가로 평가됐다. LG경제연구원은 “한국의 교육투자 효율성이 최하위권을 탈출하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교육예산이 투자되는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반면 사교육은 일부 부유층 자녀만 혜택을 입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교육투자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다각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본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첫째, 교육투자에 대한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대표적인 관점인 근대화 이론과 인적자본론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그리고 인적자본론의 비판적 시각의 제 이론의 입장을 정리하고 인적자본론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킨다.

둘째, 제주도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교육 투자의 소득증대·분배 및 외부 편익의 효과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밝힌다.

3.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본 연구를 시작함에 있어 선행연구로는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 교육투자와 경제와의 관계, 인적자본 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대학생의 인지도를 분석한 논문이 있었으나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해 교육에 깊이 관계되고 있는 교사들의 인지도에 관한 연구는 아직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고 교육투자의 정당성을 강조한 인적자본론의 견해와 비판론적 관점을 비교하며 기술한다.

또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인적자본 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교사들의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지법을 이용해 조사연구를 실시한다.

자료수집의 범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에서의 투자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한 사전 기초단계로서 교사들의 인지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조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교육투자에 대한 관점

교육투자에 대한 관점은 교육투자의 정당성을 강조한 인적자본론과 근대화 이론의 견해와 교육투자의 정당성을 비판한 종속이론적 견해로 설명될 수 있다.

1) 인적자본론

인적자본론은 교육과 훈련이 노동자의 임금과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1950년대 말 미국에서 등장한 이론이다.⁴⁾

이 이론에 따르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수익과 비용의 차이는 개인간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량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이는 다시 인적자본의 질적 차이를 유발하여 생산성 격차를 초래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수준의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보는 이론이다.⁵⁾

한 국가의 「생산기능의 전이」 또는 「기술변화」 등을 어떻게 이룩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기술변화의 블랙박스를 해명하거나 밝혀지지 않는 잔여분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설명되지 않은 이러한 잔여분은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에 기인한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⁶⁾ 이에 의해 투자로 간주되고 있는 교육은 성장의 주 근원으로 여겨졌고 물적자본에 대한 투자로부터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교육투자의 관점을 변화 시켰다.

4) 윤정일(1998), “교육과 노동시장”, 교육학백과사전, 서울: 하우동설, p.416.

5) 김영철(1998), “교육과 경제성장”, 교육학백과사전, 서울: 하우동설, p.396.

6) G. Psacharopoulos & M. Woodhall (1985). Education for Development: An Analysis of Investment Choic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인적자본의 개념에 의하면 개인은 교육으로 인해 기대되는 평생소득이 예상되는 교육비용을 초과하고 이의 회수율이 다른 대안들의 기대 회수율에 비해 큰 차를 나타낼 때 여러 대안 중 교육을 선택한다는 것이다.⁷⁾

‘교육받은 노동자들은 기업에 의하여 소유된 설비재와 여타의 생산재와는 달리 축적된 인적자본을 소유하며, 축적된 교육은 개념적으로 물적 자본의 구성요소들이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생산과 경제성장에 기여한다(Leslie & Brinkman 1988).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수익성이 있는 투자의 한 형태로 간주되고 있으며, 오늘날에 이르러 교육은 국민들의 생산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고 장래 국가의 부의 축적에 기여하는 인간에 대한 투자의 한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W. T. Schultz는 물적 자본과 교육자본의 형성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시점으로 해서 국민소득의 증가분에 대하여 교육자본이 기여한 정도를 연구했다. 그는 교육비는 소비가 아니라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투자라고 주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적자본 투자의 관점에서 학교 교육은 물적 자본을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노동자 1인당 산출량을 더 높게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수익성을 지닌 투자라고 보았다.

1960년대 이후 Schultz, Becker, Mincer 등에 의해서 제기된 인적자본의 개념 및 이론은 경제 분석에 있어서 케인즈혁명 이후 가장 중요한 이론적 발전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은 인간에 대한 투자와 그것으로 인한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통해 신고전학과 이론이 물적자본과 노동의 양적측면으로 소득분배이론과 경제성장론에서 드러낸 한계성을 극복 시켰다.⁸⁾

Schultz(1963)는 교육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학교교육의 가치를 소비자나 생산자의 측면에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를 다시 소비자 측면에서의 교육의 가치를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로 구분하였다. 그는 미래의 소비를 투자로 보고 생산자 측면에서의 가치는 소득을 벌고 생산을 하기 위

7) 김명수(1993), “한국 교사교육의 투자 회수율에 관한 비교 관점”, 교육행정학연구, pp.127~149.

8) 최승현(2000), “경제성장에 대한 인적자본의 영향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pp.1~2.

한 미래의 능력으로 간주하며 이 역시 투자로 보고 있다.

인적자본론의 관점에서 교육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비의 증대가 노동시장에 있는 노동자 개개인의 소득증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시작하였다. 즉 교육투자 수익률이 한 경제체제에서 다른 공·사적인 투자에 비해 얼마나 경쟁적 가치가 있는지 실증적 분석을 시작하였다.

전통적으로 투자와 자본에 대한 경제 분석은 기계, 시설, 건물 등에 관한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와 그 수익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 몇몇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기계나 시설에 대한 투자가 물적자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듯이, 교육은 노동자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Cohn & Geske, 1990).

이러한 고전 경제학자들에 의해 비롯된 인간을 자본으로 취급하고 인간의 가치를 밝히고자 한 노력은 1960년 Schultz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교육 투자는 국가의 지식자원을 개발, 축적하고 인적자본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 노동생산력의 향상, 경영합리화, 생산적 가치관, 태도의 함양, 합리적인 직업선택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경제발전이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 투자에 의한 경제발전은 생산의 증대, 생산 및 분배 구조의 변화, 소비생활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므로 교육은 지속적인 인적자본 축적을 위해 필수적인 투자라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에서 인간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은 생산적 투자라고 지적하였다.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획득된 능력은 이 능력의 가치와 동일하게 간주될 수 있는 비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미래의 소득에 영향을 주는 능력을 획득하는 각각의 과정은 투자의 성격을 지닌다.

Becker는 투자접근에 대하여 개인이나 국가·사회의 교육투자는 어떤 맥락에서 개인의 미래소득 또는 국가·사회의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는지에 연구의 초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투자유형을 교육, 직업훈련 및 기타의 투자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1) 교육에 대한 투자

교육이 획득된 능력을 구성하는 인적자본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는 데에는 의의가 없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출되는 비용이 잘 드러나지 않으며 경제적 수익 역시 그 전부가 학생들이나 국가·사회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에 대한 새로운 투자의 효과는 장시간에 걸쳐 여러 면에서 소득의 형태로 나타나며 비가시적이다.

또한 교육투자의 효과로 간주되는 학생들의 능력획득의 유무를 알지 못하는 데서오는 불확실성도 있다.

(2)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는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한 투자로 보며 Mincer(1962)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직업훈련에 투자한 비용을 측정하고 확인하였다. Mincer는 그의 연구에서 일정기간에 걸쳐 나타난 두 가지의 변화를 투자와 회수의 측면에서 측정하여 제시하였다.

그 첫째 변화는 높은 기술 수준이다. 두 번째의 다른 변화는 직업훈련과 관련된 공교육이다. 1939년과 1958년 사이에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는 학교 교육에서의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의 4/5내지 3/5까지 감소하였다.⁹⁾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의 회수율에 관한 평가도 9.0%에서 12.7%까지 분포하고 있다. 그는 이런 변화를 수익요인으로서의 직업훈련과 고용행위에 관한 직업훈련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3) 기타의 투자유형

기타의 투자유형을 보면 Blaug(1976)는 인적자본에 대한 연구에서 교육과 기업 내 교육 외에도 직무경험, 직업탐색과정, 국내이동, 의료서비스 등의 활동들은 노동자의 소득능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인적자본에의 투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9) 김명수(1998), “인적자본론”, 교육학백과사전, 서울: 하우동설, p.2155.

주장하고 있다.

즉 건강, 구직, 정보의 수집, 이주와 현직교육 등에 대한 모든 투자행위들은 그 결과가 개인의 이익이 되었든, 사회의 이익이 되었든 간에 소비로서보다는 투자로 간주된다는 것이다.¹⁰⁾

인적자본에 대해 전술한 바와 같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가치를 중요하게 간주하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강화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많은 지식과 기술을 구비한 인적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되며 투자 이용에 대한 경제적 회수를 얻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육이 생산성을 증대시키므로 교육에 대한 투자는 개인적으로 소득을 증대시키며, 국가적으로는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적자본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타당성을 제공하게 되었고, 이러한 논리에 따라, 196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가에 대규모의 교육투자와 교육원조 사업이 실시되었다.

인간자본론의 입장에서 교육이 근대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¹⁾

첫째, 의무교육을 통하여 문맹을 퇴치하며, 둘째,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변화와 근대화 추진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제도적 요인들을 제거하는 데 보다 대응적으로 만들며, 셋째, 증가된 기술, 효율성, 그리고 작업에 대한 지식을 통해 노동의 질을 개선시키며, 넷째, 발명과 발견을 통한 기술적 진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적, 기술적 지식을 증가시키며, 다섯째, 생산요소들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기업가적 능력을 향상시켜 주게 된다. 특히 제 3 세계국가들은 경제발전을 위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숙련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직업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인적자본론의 근거는 교육투자의 추정된 경제적 수익에 근거를 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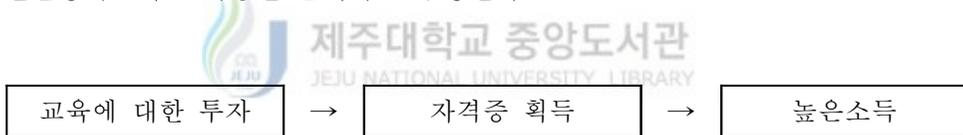
10) 김명수(1998), 전개논문, pp.2153~2157.

11) 김정희(1997),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대학생의 인지도 분석”, 석사학위논문,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p.15.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일부 국가 (특히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교육투자와 교육기회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소득분배의 불평등구조가 개선되지 않게 되자, 인적자본론의 관점에 대한 비판과 회의론이 제기 되었다.¹²⁾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논의는 초기에 Balogh와 Streeten, Merret에 의해 제기 되었다. Merret는 지능과 같은 질적 변수를 소비격차 분석에 활용하는 계량통계 방법은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에 대한 투자로 높은 생산성과 아울러 높은 임금이라는 인적자본론의 기본 관점은 Berg(1970), Arrow(1973), Spence(1973) 등에 의해 비판이 가해졌다. 이들은 <그림1> 교육투자와 높은 소득과의 관계에서 교육이 근로자의 선천적인 생산성을 보여주거나 또는 신호로 작용할 뿐 근로자의 생산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고용주에게 좀 더 능력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는 선발장치로서만 작용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림1〉 선발 가설론

출처 : Elchanan Cohn & Terry G. Geske (1990). The Economics of Education (3rd ed.). Elmsford, New York : Pergamon Press, Inc. p. 58.

이와 같이 교육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신호 역할을 한다는 이론이 선발가설 이론이다.

이러한 논의는 교육투자에 의한 소득격차가 교육받은 노동자들의 실질적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위증이나 졸업증명 자격증이 소득 격차를 만든다는 것이다. 오히려 소득격차는 고학력자에 대한 고용주들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Layard와 Psacharopoulos는 생애소득 곡

12) 김영철(1998), 전계논문, p.396.

선에 의한 교육투자와 소득향상의 지속적 관계를 바탕으로 선발가설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Wise도 교육성취도와 직무수행 능력과의 긍정적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¹³⁾

인적자본론에 대한 또 다른 비판적 시각은 노동시장 분할 이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Rees(1974)와 Dickens & Lang(1985)은 노동 시장은 교육과 연수를 받고 고용되어 능력에 따라 상위 이동이 가능할뿐 아니라 임금수준이 높고 근로조건이 양호한 노동자로 구성된 1차 시장구조와 교육과 연수에 상관없이 승진의 기회가 부족하고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하며 1차 노동시장에 비해 임금도 낮은 노동자로 구성된 2차 시장구조로 분할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소득결정력은 개인의 생산성에 관계없이 노동시장의 분할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견해와 달리 Bowles와 Gintis는 신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인적자본론의 결점을 제시하였다.¹⁴⁾

이들은 소득 격차의 주요요인을 가정배경과 사회적 계급에 있다고 주장하며 교육은 단지 상위계급의 세대간 상속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였다. 급진적 관점에서 볼 때 공교육은 교육의 기회균등 보다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며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위한 매개체로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이다(Cohn & Geske, 1990).

1972년 Bowles는 소득에 대한 교육효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교육과 소득의 메카니즘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적자본론의 본질적 연구 방향은 큰 변화 없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연구되고 있다.

또한 인적자본론에 대한 비판이론들이 인적자본론의 결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인적자본 투자는 경제적 측면에서 인간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계속 이루어 질 것이다.

13) 김명수·김영철(1998), 전계논문, pp.2155~2156,396~397.

14) 김찬기(1993), “보울즈와 진티스의 포스트 마르크스주의로의 전환과 신교육이론: 새로운 패러다임적 전환”, 교육학연구회, pp.195~220.

2) 근대화 이론

인적자본론과 유사한 논리로 발전경제학자들은 근대화 이론을 발전시켰다. 근대화 이론은 두 차례의 세계적인 큰 전쟁을 치르면서 나타난 지적반응으로 이는 인류의 장래에 대하여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려고 노력한데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근대화 이론의 초기 형태는 이미 근대화되고 산업화된 사회의 발전에 관하여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명의 발생과 쇠퇴는 그 사회내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적 가치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Huntington(1976)에 의하면 근대화의 과정은 진화, 복잡, 체계적·전세계적인, 단계적인, 동질화하는, 역행을 할 수 없고 진보적인 것으로 특징지우고 있다.

근대화 이론은 교육을 통해 국가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아울러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기능과 기술, 근대적 가치, 태도, 동기 유발 등을 제공하여 국민을 사회화 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산업화된 국가의 교육 발전은 인간 자본에의 투자를 확대하여 이룬 것이기 때문에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들도 교육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⁵⁾

라틴 아메리카 사회 파악에 있어서도 근대화 이론은 이중사회론 즉 한편으로는 봉건적인 상태(농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인 상황(도시)에 놓여있는 이중사회로 본다. 농촌은 자본주의의 동태적인 힘과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침체되어 봉건적인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도시의 자본주의가 농촌으로 확산됨으로써 이 지역이 발전되어 가는 것이라 본다.

근대화 이론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⁶⁾ 첫째, 발전은 모든 사회에서 자발적이며, 거역할 수 없는 과정이다. 둘째, 발전은 구조적 분화와 기능적 전문화를 지향한다. 셋째, 발전의 과정은 각 사회에서 달성될 정도를 나

15) 김영철(1998), 전개논문, p.396.

16) 김정희(1997),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학생의 인지도 분석-”, 석사학위논문,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p.11.

타내 주는 분명한 단계로 구분된다. 그리고 넷째, 발전은 외적 경쟁 혹은 군사적 위협, 그리고 근대적 분야들을 지지하고, 전통적 부문들을 근대화시키는 내적 장치에 의해 추진될 수 있다.

근대화는 비근대적 요소의 무엇인가가 분명히 달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발도상국가들은 그들 사회에서 전통적 요인들과 실제들을 확인하여 이러한 것들을 제거시켜야만 근대화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¹⁷⁾

3) 종속 이론

1960년대 중반에 국제적 관점에서 인적자본론에 바탕을 둔 근대화론의 대안으로 종속이론 등이 등장했다.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은 20세기 라틴아메리카의 사회·경제적 실패에서 시작된 이론으로, 유엔 산하기관인 라틴아메리카 경제위원회(ECLA)에 의해 주도된 내부지향적 발전 노선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와 경제계획이었다.¹⁸⁾ 이 관점은 전통적 경제이론이 라틴아메리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라틴아메리카의 저발전 원인은 세계 경제에서의 이들의 위치 즉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확산으로 중심부 자본주의 국가의 정치, 군사, 경제적인 힘이 주변부 지역에 침투하여, 중심부는 발전하고 주변부는 저발전한다는 것이다. 또한 종속이론은 발전을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적 주권의 확립, 투자를 위한 잉여생산, 전체인구의 기본적 필요를 적절히 제공하는 일정수준의 생산성, 분배양식을 포함하는 것이며, 정치적·사회적 측면에서는 평등의 실현, 소외의 제거, 의미있는 작업의 마련,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들에 관계되는 결정을 스스로 하게 하는 정치적, 사회적 조직의 확립을 의미한다.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파악에 있어서도 근대화론이 보듯, 자본주의로의 이행중인 이중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사회로 본다.¹⁹⁾ 이러한 종속이론이 발전하게 된 직

17) 정일환(1996b), 「교육과 발전패러다임」 서울:중앙적성출판사, pp.351~352.

18) 김영철(1998), “교육과 경제성장”, 교육학백과사전, 서울: 하우동설, p.396.

19) 김용기, “종속이론의 구조와 비판”, [Online] World wide web <http://www.kyungnam.ac.kr/ebm/sostudy/1집>.

접적 계기는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수입대체 산업화는 대외 의존을 감소시키지 못했으며 내부적으로는 소득 배분이 점점 더 불평등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인구의 많은 부분이 주변화되었다. 따라서 종속이론은 그때까지 라틴아메리카 발전 정책의 근간이 되어 왔던 근대화 이론에 대한 철저한 부정으로 출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종속이론의 가장 취약점은 구체적인 실증적 자료 제시가 없어 타당성과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²⁰⁾

2.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

1) 교육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교육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는 교육 발전으로 인한 경제성장에의 기여와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교육발전의 기여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국가, 지역사회, 개인, 그리고 국가간에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행위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교육이다. 즉 교육이 인간 재능의 계발에 기여하고 인간 재능계발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그리고 여타의 유럽국가들은 지난 100년 이상에 걸쳐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렇게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한결 같이 자국 노동력의 교육과 훈련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노동이나 여타 투입 요소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과학기술이 체계적으로 적용되고 증대된 지식이 과학자, 기술자, 경영자 등에게 내재화됨에 따라, 일반교육, 기술교육, 현직교육의 가치가 크게 증대된 것이다.²¹⁾

Rodriguez와 Davis (1974)는 경제체제에 대한 교육의 투자효과를 첫째, 교육투

20) 김영철(1998), 전계논문, P.396.

21) 김경근(1995), “인적자본의 본질과 효과에 대한 소고”, 교육재정·경제연구.4(2), 한국 교육재정·경제학회, p.406.

자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노동자의 소득과 고용을 높이면서 사회적 부의 증식에 공헌하며, 둘째, 교육투자는 지식의 갱신과 지식의 재생산을 통하여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꾀하여 경제성장에 중추적 기능을 하며 셋째, 교육투자는 국민의 건강증진, 계속적 현장훈련의 강화, 그리고 성인 직업훈련에 투자되면서 중요한 사회적 부를 형성하는 경제적 투자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즉 경제성장에 대한 교육 투자의 효과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²⁾

경제성장에 있어 인적자본이 갖는 기여에 대해 회의적인 일부 학자들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육팽창을 단지 경제 성장의 과실에 불과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물론 경제성장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육팽창을 촉진시킬 수 있지만 이것에 의해 경제성장이 인적자본 투자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는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토록 하며, 경제성장은 다시 인적자본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에 대한 보다 정확한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적자본의 성장이 경제성장에 과연 얼마만한 기여를 하고 있는가에 관한 대표적 연구로는 Denison(1985)이 미국경제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인적자본론이 국가의 최적 생산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기여자로 보고 있다. 1980년대 미국은 노동 생산성의 상대적 쇠퇴를 경험하였는바, 일부 상대적 쇠퇴는 인력관리에 대한 부실한 계획과 활용에 기인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교육은 생산환경을 개선시키는데 실제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주게 된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훈련을 받거나 취업시험에 통과를 위해 더 잘 준비되거나 신체적, 동기적 요인에 있어서 생산성을 강화하기에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²³⁾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 국가들이 지난 수십년동안 이룩한 경제

22) 강무섭(1983), “직업 교육의 비용-효과/수익분석”, 한국교육개발원, p.44.

23) 김정희(2002), “인적자본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지도 분석”, 박사학위논문,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p.63.

적 성과도 경제 성장에 있어 인적자본 투자가 갖는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서방 세계의 차별적 경제 정책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교육 받고, 훈련된 노동력에 힘입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Denison(1962)은 1929-1957년까지의 미국에 있어서 경제 성장에 대한 교육의 기여도를 23%라고 밝혔고 Schultz(1968)은 1929-1957년까지 교육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17.3%라고 추정하였다.²⁴⁾

한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송위섭(1988)은 지난 1955~1979년 사이에 GNP는 연평균 7.62% 성장하였는바, 이러한 GNP 성장은 자본 증가에 의해 53.2%, 노동력 증가에 의해 15.5%, 노동력 질의 향상에 의해 3.5%가 된다고 추정하였다. 노동력 질의 향상이 경제 성장에 기여한 정도는 1955-1959년에는 교육을 통한 노동력 질의 향상이 GNP증대에 15.9%의 기여도를 보이나 1959-1969년에는 3.3% 그리고 1969-1979년에는 1.6%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송위섭(1988)은 한국에서 경제 성장에 노동력 질의 변화가 미친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난 이유를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기술 변화의 상당 부분이 노동력 질 향상에 의해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데서 찾고 있다.²⁵⁾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노동력 질 향상이 실제 경제 성장에 미친 효과는 커질 수 있으며 지속적 경제 성장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그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교육투자의 소득증대 및 분배에의 기여

인적자본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경제학적 발견에 의해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는데 그 중의 하나는 소득분배에 관한 것이다.

개인의 소득분배에 관한 자료가 보다 자세한 형태로 수집됨에 따라 노동을 통

24) 김정희(1997), 전계 논문, p.17.

25) 김경근(1995), 전계 논문, pp.408~409.

해 얻어진 임금소득의 격차가 개인소득의 불평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Becker(1975)를 비롯한 많은 인적자본론자들은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소득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교육에 따른 직·간접 비용을 공제하고 상이한 가정배경과 능력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교육은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투자활동이라는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으로 갈수록 교육에 따른 소득의 증가는 더욱 현저하며 거의 모든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소득은 늘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sacharopoulos, 1985)

개인 및 사회 소득의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 투자의 효과는 교육연한이 길수록 연간 소득은 많아지고, 교육성취도가 높을수록 총 생애소득은 증가하며, 생애소득이 현재 투자에 대한 수익으로 환산될 때 소득에 대한 한계 수익은 긍정적으로 나타나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학력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80년대 초에 학력 배경의 차이에 의해 4년제 대졸 남자는 고졸 남자보다 41% 더 많은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어도 '80년대 후반까지는 교육투자를 늘릴수록 그에 대한 보상의 크기도 증가하였다.²⁶⁾

교육투자의 효과 분석에서는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에 주는 효과 분석과 교육받은 결과로 고용 기회가 확대되고 소득 재분배가 질적으로 균등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국가의 경제 안정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 투자의 투입으로서 산출되는 효과로 들 수 있다.

Becker(1964)는 인적자본론에서 인적자본의 효과를 분석하면서 인적자본과 소득의 인적 분배를 밝히는 분석 모형을 개발하여, 교육투자에 작용하는 요인을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 고찰하고, 수요와 공급조건의 교차점에서 적정 인적자본 투자량이 결정되고 따라서 투자량의 차이에 따라 소득의 차이와 분포가 결정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26) 김경근(1995), 전계 논문, p.392.

3) 교육투자의 외부편익 효과

교육 투자의 경제적 수익에 관한 지금까지 연구는 대부분 교육으로 인해 얻어진 수익이 이웃, 고용주, 동료, 가족 및 사회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간과하고 교육을 직접 받은 사람들의 수익만을 측정하려고 시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Weisbrod(1964)는 교육을 직접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교육의 편익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는 교육으로부터 간접적 편익을 받게 되는 것을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거주관련 편익(residence-related benefit)은 주위 지역주민과 교육받은 사람과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편익을 말하는데 혜택 받는 대상은 현재의 가족, 미래의 가족, 이웃, 학생이 거주하는 다른 지역 주민이 된다.

둘째, 고용관련 편익(employment-related benefit)은 교육받은 사람이 취업했을 때 그 직장에 편익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교육받은 사람으로 인해 상품의 질이 개선되고 그로 인해 생산성이 높아졌을 때 동료나 고용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동료들간 또는 고용주와 피고용인간에 관계가 우호적이 된다.

셋째, 사회 전반적인 편익(society-related benefit)은 교육이 사회 전반적인 문제해결과 정치, 경제체제에 안정을 유지하게 한다. 즉 시장 경제 중심과 경쟁의 유지 정치, 민주화, 기회균등의 실현 문화발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육에서의 사회적 편익은 범죄율 감소, 사회 결속력 및 기술적 변화의 증가, 그리고 소득분배의 변화 등을 포함한다.

경제학자들은 교육의 공공재화라는 측면에서 기술변화의 증가 특히 기술확산과 같은 경제성장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강조한다.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은 새로운 아이디어 제공능력이 뛰어나고, 새로운 정보에 쉽게 접근하며 기술을 발전시켜 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지도자 양성에 기여한다.

이러한 교육의 외부편익으로 확산효과(spillover effect)는 교육의 효과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혹은 다른 지역, 다른 국가 등에까지 교육의 외부편익이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²⁷⁾

이상에서 교육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경제성장에의 기여, 소득증대 및 분배, 외부편익의 효과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실증적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교육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하므로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교육을 받은 정도에 따라 소득은 많아진다. 따라서 개인이 국가에 내는 세금도 증가하여 국가와 사회의 부가 증식되고 교육을 직접 받은 개인뿐 아니라 그가 속해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간접적으로 그 혜택이 전달됨을 볼 수 있다.

4) 한국의 교육투자

한국의 인적자본정책은 2003년 참여정부의 인적자원개발정책((RHRD)에서 극대화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인적자원 개발정책은 지역발전전략과 지역인적자원개발 연계를 통한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적 통합,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으로 집대성되고 있다.

참여정부가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며 지역의 경쟁력은 사람의 지식, 즉 인적자원 경쟁력과 그 핵심요소인 대학의 경쟁력에서 출발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로 지역이 경제활동 기본단위로 대두됨으로써 경제발전에서 지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여졌고 현재 수도권 과다집중으로 인한 지방침체의 악순환이 국가와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악순환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발전은 아울러 각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정책인 것이다.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은 지역주민의 능력개발과 지역공동체 의식 및 문화정립 그리고 지역혁신체제(RIS) 구축이라는 3대 정책과제를 지향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능력개발을 위해 주민기초교육보장, 평생학습 기회확충, 지역산업에 부응하는

27) B. L. Wolfe(1995), "External benefits of education", in Carnoy, M.(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conomics of Education, (1st ed.), Oxford: Elsevier Science, Ltd., pp.159~163.

계속적 직업능력 함양, 소외계층 인적자원개발 등을 지향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의식 및 문화정립을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의식 및 자치의식 함양과 문화예술 활동 및 전통문화 활성화, 청소년문화육성, 여가활동 활성화를 지향하며 지역혁신 체제 구축을 위해 대학, 연구소의 지식창출 거점화, 산학연 협력체제, 지역의 연구인력 양성 및 유지, 인적자원 역량제고를 위한 지역·국제간 교류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초중등학교와 청소년단체, 주민센터, 평생학습센터, 시민단체, 도서관, 직업훈련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 관련기관의 네트워크 구성과 시·도청, 지방대학, 교육청, 지방노동관서, 중소기업청 등 추진관의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다.

참여정부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지방대학 중심 지역 혁신시스템 구축·운영과 지방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의 기본역량 향상에 관한 내용이다. 지방대학 중심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지역거점대학을 육성하고 대학 거점의 산학연을 활성화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학중심 지역발전계획을 공간계획 등에 반영한다고 했다. 지방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의 기본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평생학습에 지자체의 역할을 제고하며 사회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 혁신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결국 2003년 한국의 인적자본 정책은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으로 대별되며 이것은 지방교육 특히 지방대학에 대한 교육투자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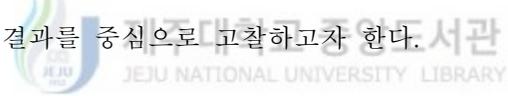
3.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

교육투자와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는 학자에 따라 다르게 시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Harbison과 Myers가 제시한 다양한 교육투자의 효과 분석 방법의 유형은 ①교육비와 소득관계 분석방법(the relationship between expenditures on education and income), ②잔여액 분석방법(the residual

approach), ③교육투자 수익률 분석방법(the rate of return approach), ④단순상관계수 분석방법(The simple intercountry correlations approach)으로 제시하고 있고, Ramamoorth(1967)는 단순상관계수 분석방법, 교육투자 수익률 분석방법 및 교육비와 국민소득 관계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Bowen(1968)은 교육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 분석방법을 단순상관계수 분석방법, 교육투자 수익률 분석방법 및 인력수요 분석방법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Harbison과 Myers가 분류한 교육비와 소득관계분석방법과 Ramamoorth가 분류한 교육비와 국민소득 관계 분석방법은 그 성격을 감안해 볼 때, 단순상관계수 분석방법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고, Bowen이 분류한 인력수요 분석방법은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평가적 분석 방법이라기 보다는 교육계획기법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²⁸⁾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교육과 경제적 효과에 관하여 상관계수 분석방법, 교육투자 수익률 분석방법 및 잔여액 분석방법, 투입-산출 분석방법에 따라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단순상관계수 분석방법

단순상관계수 분석방법은 교육에 대한 투자규모에 따라 경제발전 및 소득규모와의 관계를 상관관계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상관계수를 활용하는 분석방법에는 일반적으로 국가간의 횡적 비교방법과 국가내의 종적비교 방법이 있다.

국가간의 횡적 비교방법은 교육의 발전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와 경제발전 지표간의 관계를 국가간의 자료를 비교하여 분석하려는 방법이다.

이러한 국가간의 횡적 비교에 의한 국제비교방법은 한 국가의 발전정도를 국가간에 비교함으로써 자국의 경제발전 수준과 교육발전 수준을 확인케하고, 미래의 경제성장에 따른 인력개발 및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각국의 교육제도와 운영의 독자성과 전통 때문에 한 나라의

28) 김영철(1998), 전계논문, p.397.

효과적인 방법이 다른 나라에서도 효과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통계자료의 표준화가 미흡하며, 또한 공통적인 척도가 불비하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는 점등의 한계점을 가진다.

한편 종적 비교방법은 한 국가내에서의 교육과 경제 발전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시계열상의 종단적 자료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상관계수를 활용한 분석방법은 교육수준 내지 교육투자의 규모와 경제성장 간에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는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경제적 효과인 경제성장의 변량을 설명해주는 독립변수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단순상관계수 분석방법에서는 이 점을 우회하고 있다.²⁹⁾

2) 교육투자 수익률 분석방법



교육투자 수익률 분석방법(the rate of return approach)은 교육투입으로서의 교육비와 교육산출로서의 교육수익을 비교하여 교육의 수익성 정도를 밝히려는 방법이다.

이 분석법은 교육에 소요되는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합계를 교육투자라고 보고 교육을 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금전적 수익만을 평가소득으로 산출하고 이것을 다시 현재 가치화하여 교육수익으로 보아 이 둘을 비교함으로써 교육의 투자 수익률을 구한다.

우리나라의 교육투자에 대한 수익률 분석은 <표1>에서 보듯이 1960년대 말 이래로 여러 차례 연구가 수행되었다. 사회적 수익률을 분석한 이러한 연구 결과물에 의하면, 우리나라 각급 학교 수익률은 연구자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는 나타나고 있으나, 1970년대를 전후한 모든 연구에서 공통된 사실은 고등학교 수익률이 15% 이하로 나타나고 있고, 대학 수익률은 10%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29) 김영철(1998), 전개논문, p.398.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1970년대 말 이후에 수행된 연구에서는 대학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1〉 우리나라 교육투자 (사회적) 수익률 (%)

연구자	기준년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김광석	1967	12.0	9.0	5.0
플로리다 주립대	1969	20.0	11.0	9.5
김윤태 외	1969	-1.0	15.0	8.5
남우현·정창영	1972	3.7	2.9	1.3
배종근	1977	2.8	9.9	13.8
박세일	1980	2.9	8.1	11.7
김영철·공은배	1982	9.5	12.3	13.0
공은배 외	1985	11.2	7.6	14.5
공은배·백성준	1994	-	7.3	7.2

* 교육투자수익률은 남자의 사회적 수익률을 나타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1994: 169).



이러한 교육투자 수익률 분석결과가 교육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치로서 사용되는 근거는 교육수준별 근로자의 소득 격차가 곧 한계생산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인간자본론의 가설적 주장에 있다. 즉 보다 높은 교육 수준의 근로자가 그 보다 낮은 교육 수준의 근로자 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은 그 만큼 높은 생산성을 올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투자 수익률 분석방법은 교육의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한 적정선으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비교적 섬세한 분석방법이지만 다음과 같은 취약점을 지닌다.

첫째, 수익률 분석에서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과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간의 소득차는 그들이 추가로 더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고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소득 차가 추가로 받은 교육의 결과만이라고는 볼 수 없다

둘째, 수익률 분석에서 소득이란 근로자의 한계생산성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소득이 한계생산성과 동일하게 되기 위해서는 완전하게 작용하는 노동시장이 전제되어야 하나, 실제에서 완전한 노동시장이란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상대적인 소득과 상대적인 생산성이 아무런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 수익률 그 자체도 경제적 의미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

셋째, 수익률 분석에서 필요한 자료는 한계수익률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개인의 소득을 측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평균소득을 사용해야 하는 제한점을 갖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교육의 투자가 경제발전에 직접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밝히기 어려우나 교육이외의 다른 부문에서의 투자 수익률과 비교함으로써 투자 우선순위를 가리는 준거로 사용될 수 있다.³⁰⁾

3) 잔여액 분석방법

잔여액 분석방법(the residual approach)은 교육이 국가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 국민소득 증가분 중에서 노동·자본 등의 측정 가능한 투입에 기인된 소득증가를 제외하고, 그 나머진 잔여분을 교육을 통한 노동의 질적 향상 및 기술진보의 결과로 생각한다.

잔여액 분석은 경제성장에 투입요인의 증가에 의해서 기인된 소득증가로 설명하고, 이러한 투입요인의 증가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잔여로 보고 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경제성장에 대한 교육의 기여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적·물적 요인을 분석하는데 그 중의 한 요인이 교육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분석방법에 따라 교육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있다.

Schultz 모형을 적용한 이영기의 1971년 연구에서 1962년부터 1968년까지 교육

30) 한유경(1992),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교육; 교육투자의 확대 논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p.41~42.

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14.75%로 나타났으며 이상기의 1989년 연구에서는 1975부터 1987년까지 교육이 경제성장에 미친 기여도를 13.54%로 분석하였다.³¹⁾

Denison은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양과 질을 함께 감안한 요소투입과 기타 요인의 작용에 의한다고 판단하며 특히 교육은 이 가운데서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의 질적 개선에 작용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본다. 그는 교육적 배경이 노동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인자이고, 그것은 개개인의 작업유형과 효율의 조건이라고 본다. 노동자 개인이 수행할 노동의 가치는 그의 교육적 배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³²⁾

교육이 국가 경제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하는 점은 교육의 산출을 계량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측정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Schultz와 Denison 등이 개발한 잔여율 분석방법은 교육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4) 투입-산출 분석방법

교육에 투입되는 자원이 교육산출로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가를 기술해 놓은 방법으로 교육의 과정에서 교육투입 요소와 이를 통해 얻어지는 교육 결과간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한 분석 방법이다.

교육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를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혹은 다른사업의 생산을 유발함으로써 있을 수 있는데, 전자는 교육산업의 성장으로 인하여 국민 총생산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교육산업이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며 후자도 교육산업의 성장으로 인하여 유발된 관련 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 즉 교육산업 후방연쇄 효과, 경제성장에 간접효과를 보여준다.³³⁾

31) 김정희(1997), 전계 논문, p.27.

32) E. F. Denison (1967), "Why Growth Rates Differ: Postwar Experience in Nine Western Countries. Washington D.C. : The Brookings Institution., p.78.

이 분석방법은 성장기여 접근법이 생산함수를 사용함으로써 교육의 산출인 인간 능력의 증진이 경제 성장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교육에 투입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생산을 확충하는 수요측면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비판하고 수요측면에서 교육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를 밝히려는 것이다.

1983년의 박래영의 연구에 의하면 국민 총생산의 성장에 대한 교육산업의 직접적인 기여도는 1953~1961년의 기간에 연평균 2.2%, 1962~1971년의 기간에는 1.3%, 1972~1981년 기간에는 1.5%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53~1981년의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하면 국민경제 성장률의 1.7%는 교육산업의 부가가치에 의한 직접적인 기여분이라고 밝히고 있다.³⁴⁾

4. 선행연구

1800년대에서 1900년대 초 교육의 수익과 인적자본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었음을 밝힌 실증적인 연구들이 있기는 했으나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들어서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외국의 선행연구를 보면 Mincer(1958; 1962)는 인적자본 형성의 다양한 영역을 시도한 내용의 저서가 있고 1963년 Schultz의 저서 『교육의 경제적 가치』는 교육경제학 분야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또한 그의 뒤를 이어 Becker가 『인적자본』이라는 저서를 남겼는데 인적자본 형성에 관한 이러한 연구들은 인적자본의 개념화의 어려움과 교육수익 측정, 개인적·사회적 수익률 등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해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 동안 교육과 직업훈련과 같은 기술을 향상시키는 소득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최근 인적자본 형성에 관한 연구는 가정과 학교교육 사이의 관계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겠다.

1990년에서 2002년 사이의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물들을

33) 박래영(1983), 교육산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p.49.

34) 박래영(1983), 상계서, pp.40~58.

살펴보면 교육재정·경제연구 최강식의 “교육이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 분석”(1997),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논문인 박광재의 “교육투자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1997),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인 강병규의 “한국의 인적자본 수급변동과 경제성장”(1998)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인 양영준의 “연구개발 투자에 의한 기술변화와 인적자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1998), 서울시립대 대학원 석사논문인 이상윤의 “인적자본과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1999),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인 심재희의 “인적자본과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실증분석”(1999), 등의 경제학 분야에서는 실증 분석하는 연구물들이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교육학쪽에서는 대구가톨릭대학원 석사논문인 김정희의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대학생들이 인지도 분석”(1997)이 이루어졌고, 김정희의 “인적자본 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2002)가 있었다.

이처럼 경제학쪽에서는 교육투자와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교육을 경제학적 논리로만 보는 데서 교육투자의 의미를 살려오지 못했다고 본다. 김정희의 “인적자본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은 교사들의 의견을 묻고는 있었으나 10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분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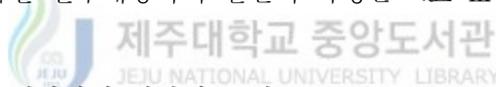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을 혼합한 교육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가장 교육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교사들은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 분석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조명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설문조사 및 통계 자료 분석에 의존한 양적 접근 방법에 의해 수행되었다.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제주도에 근무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교사 620명을 무선 표집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무선 표집된 620명의 교사들에게 2003년 2월 3일부터 12일까지 배포하여 92.2%인 572부가 회수되었으나 그 중에서 응답에 불성실한 12부를 제외한 560부만을 최종 분석자료로 삼았다.

설문지에 응답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학교급별	초등학교	179	32.0	
	중학교	172	30.7	
	고등학교	209	37.3	
	고등학교	실업계	113	54.1
	계열	인문계	96	45.9
성별	남	236	42.1	
	여	324	57.9	
경력	10년 미만	120	21.4	
	10년~20년 미만	241	43.0	
	20년~30년 미만	153	27.3	
	30년 이상	46	8.2	
학력	대졸	351	62.7	
	대학원졸(재)	209	37.3	
계		560	100.0	

2. 측정 도구 및 내용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에 따른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김정희가 개발한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관한 설문지」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자가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아 수정 보완하여 제작하였다.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교사들의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투자의 관점과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로 구분하여 제작하였고,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 소득증대·분배에 대한 효과, 인간자본론, 비판론, 교육의 외부 편익 효과를 하위요인으로 하여 28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의 5단계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화했고 부정적인 질문 내용인 경우는 역산하여 점수화했다.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제주도내 교사들의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구의 내용은 <표Ⅲ-2>와 같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경제성장의 효과와 소득증대 분배 효과, 인간자본론, 비판론, 외부편익 효과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증으로는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Ⅲ-2〉 조사도구의 내용

하위요인	하위요인 내용	문항번호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	· 미래 기대에 경제적 수익을 위해 교육투자 정도	11
	· 취업구조 변화에 적응력 정도	28
	· 사회적 부의 증식의 공헌정도	17
	·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에 중추적 기능 정도	6
소득증대·분배에 대한 효과	· 사회적 부와 소득 증대 정도	23, 27
	· 장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의 수단 정도	20
인간자본론	· 노동의 생산질 향상 정도	8
	· 경제성장의 원천	25
	· 취학률의 경제성장과 상관관계	12
	· 개인의 소득증대	19
	·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를 보다 확대	1
	· 투자 비용에 대한 경제적 회수 정도	9
	· 학력 차에 따른 임금 차이 정도	13
	· 합리적인 소비생활 정도	2
	· 직업 교육 강화	22
	· 선진국의 교육이론과 실제를 도입·적용	14
	· 사회전반의 생산성 향상	10
	· 평등한 사회 구조에 기여	3
비판론	· 근대적인 사고 방식 함양	16
	· 학생선발 장치	21
	· 학위 소위 여부나 졸업장 중시	4
	· 기존의 사회질서 정당화	7
	· 문화적 다양성 추구에 기여 정도	15
외부편익효과	· 엘리트 우월감은 사회 발전에 저해 요인 정도	5
	· 사회 전반의 복지 향상	18, 24
	· 사회 전반적인 문제 해결과 정치·경제 체제 제반 안정 정도	26

IV. 조사결과 및 해석

1. 경제성장 효과에 대한 인식

1) 미래 기대에 부응한 경제적 수익을 위한 교육투자 정도

미래 기대에 부응한 경제적 수익을 위한 교육투자 정도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과 같이 전체 평균이 3.93으로, 교사들은 미래 기대에 부응한 경제적 수익을 위한 교육투자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 미래 기대에 부응한 경제적 수익을 위해 교육투자 정도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t(F)	p	Scheffe	
학교급별	초등학교	179	3.92	0.81	0.79	0.457	-
	중학교	172	3.88	0.79			
	고등학교	209	3.98	0.72			
	고등학교 계열	실업계 인문계	113 96	3.89 4.07	0.69 0.76	-1.79	0.074
성별	남	236	3.95	0.78	0.70	0.487	-
	여	324	3.91	0.77			
경력	10년 미만	120	3.82	0.81	2.70*	0.045	-
	10~20년 미만	241	3.88	0.79			
	20~30년 미만	153	4.03	0.70			
학력	30년 이상	46	4.09	0.76	-3.34**	0.001	-
	대졸	351	3.84	0.79			
	대학원졸(재)	209	4.07	0.72			
전 체	560	3.93	0.77				

* $p < .05$, ** $p < .01$

학교 급별로는 고등학교 교사가 미래 기대에 부응한 경제적 수익을 위한 교육투자 정도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교사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나 이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고등학교 계열별로는 인문계 교사가 실업계 교사보다 미래 기대에 부응한 경제적 수익을 위한 교육투자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고등학교 계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미래 기대에 부응한 경제적 수익을 위한 교육투자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경력별로는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미래 기대에 부응한 경제적 수익을 위한 교육투자 정도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교육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보였다($F=2.70, p<.05$). 학력별로는 대학원졸 교사가 대졸 교사보다 미래 기대에 부응한 경제적 수익을 위한 교육투자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34, p<.01$).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미래 기대에 부응한 경제적 수익을 위한 교육투자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학력이 대학원졸인 교사가 대졸인 교사보다 미래 기대에 부응한 경제적 수익을 위한 교육투자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취업구조 변화의 적응력 정도

고학력자의 취업구조 변화의 적응력 정도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와 같이 전체 평균이 3.33으로, 교사들은 고학력자의 취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취업구조 변화에 적응력 정도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t(F)	p	Scheffe	
학교급별	초등학교	179	3.32	0.92	1.08	0.279	-
	중학교	172	3.31	0.86			
	고등학교	209	3.35	0.84			
	고등학교 실업계	113	3.41	0.79			
	계열 인문계	96	3.28	0.89			
성별	남	236	3.47	0.83	3.18**	0.002	-
	여	324	3.23	0.89			
경력	10년 미만	120	3.28	0.96	0.23	0.878	-
	10~20년 미만	241	3.33	0.81			
	20~30년 미만	153	3.35	0.86			
	30년 이상	46	3.39	0.93			
학력	대졸	351	3.38	0.86	1.72	0.086	-
	대학원졸(제)	209	3.25	0.89			
전 체	560	3.33	0.87				

** p<.01

학교 급별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등학교 계열별로는 실업계 교사가 인문계 교사보다 고학력자의 취업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정도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고학력자의 취업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정도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18, p<.01). 교육경력별로는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고학력자의 취업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정도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교육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학력별로는 대졸 교사가 대학원졸 교사보다 고학력자의 취업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정도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는 않았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고학력자의 취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고학력자의 취업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적 부 증식의 공헌 정도

교육투자의 사회적 부 증식에 대한 공헌 정도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3>과 같이 전체 평균이 3.74로, 교사들은 교육투자가 사회적 부의 증식에 공헌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사회적 부 증식의 공헌 정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Scheffe	
학교급별	초등학교	179	3.70	0.73	-0.06	0.950	-
	중학교	172	3.70	0.69			
	고등학교	209	3.80	0.63			
	고등학교 계열	113	3.80	0.52			
성별	남	236	3.78	0.69	1.12	0.262	-
	여	324	3.71	0.67			
경력	10년 미만	120	3.58	0.68	6.68***	0.000	①≠③ ①≠④
	10~20년 미만	241	3.69	0.69			
	20~30년 미만	153	3.87	0.66			
학력	30년 이상	46	3.98	0.61	-2.99**	0.003	-
	대졸	351	3.67	0.69			
	대학원졸(제)	209	3.85	0.65			
전체	560	3.74	0.68				

** p<.01, *** p<.001

학교 급별로는 고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보다 교육투자의 사회적 부 증식에 대한 공헌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학교 급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고등학교 계열별로는 실업계 교사와 인문계 교사가 통계적으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교육투자의 사회적 부 증식에 대한 공헌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경력별로는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교육투자의 사회적 부 증식에 대한 공헌 정도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교육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6.68, p<.001$). 또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10년 미만 교사와 10~20년 미만 교사, 10년 미만 교사와 30년 이상 교사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력별로는 대학원졸 교사가 대졸 교사보다 교육투자의 사회적 부 증식에 대한 공헌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99, p<.01$).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교육투자가 사회적 부 증식에 공헌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대학원졸 교사가 대졸 교사보다 교육투자의 사회적 부 증식에 대한 공헌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에 중추적 기능 정도

교육투자가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에 미치는 중추적 기능 정도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4>와 같이 전체 평균이 4.12로, 교사들은 교육투자가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에 미치는 중추적 기능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에 중추적 기능 정도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t(F)	p	Scheffe	
학교급별	초등학교	179	4.07	0.74	1.49	0.227	-
	중학교	172	4.09	0.67			
	고등학교	209	4.19	0.69			
	고등학교 실업계	113	4.13	0.69			
	고등학교 인문계	96	4.25	0.68			
성별	남	236	4.20	0.70	2.38*	0.018	-
	여	324	4.06	0.69			
경력	10년 미만	120	3.99	0.74	5.82**	0.001	①≠④ ②≠④
	10~20년 미만	241	4.08	0.69			
	20~30년 미만	153	4.19	0.68			
	30년 이상	46	4.46	0.59			
학력	대졸	351	4.04	0.70	-3.49**	0.001	-
	대학원졸(제)	209	4.25	0.68			
전 체	560	4.12	0.70				

* p<.05, ** p<.01

학교 급별로는 고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보다 교육투자가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에 미치는 중추적 기능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등학교 계열별로는 인문계 교사가 실업계 교사보다 교육투자가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에 미치는 중추적 기능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교육투자가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에 미치는 중추적 기능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38, p<.05). 교육경력별로는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교육투자가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에 미치는 중추적 기능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교

육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5.82, p<.01$). 또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10년 미만 교사와 30년 이상 교사, 10~20년 미만 교사와 30년 이상 교사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력별로는 대학원졸 교사가 대졸 교사보다 교육투자가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에 미치는 중추적 기능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49, p<.01$).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교육투자가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에 미치는 중추적 기능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교사와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대학원졸인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교육투자가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에 미치는 중추적 기능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소득증대 분배 효과에 대한 인식



1) 교육투자로 인한 국민 소득 수준 향상 정도

교육투자가 국민 소득 수준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5>와 같이 전체 평균이 3.78로, 교사들은 교육투자로 인해 국민 소득 수준이 향상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수준 높은 교육으로 인한 국민 소득 수준 향상 정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Scheffe		
학교급별	초등학교	179	3.85	0.76	2.14	0.118	-	
	중학교	172	3.69	0.74				
	고등학교	209	3.78	0.73	-1.46	0.146	-	
	고등학교 계열	실업계	113	3.72				0.67
		인문계	96	3.86				0.79
성별	남	236	3.87	0.74	2.67**	0.008	-	
	여	324	3.70	0.74				
경력	10년 미만	120	3.67	0.75	4.05**	0.007	-	
	10~20년 미만	241	3.71	0.73				
	20~30년 미만	153	3.92	0.71				
	30년 이상	46	3.93	0.85				
학력	대졸	351	3.70	0.74	-2.96**	0.003	-	
	대학원졸(제)	209	3.89	0.73				
전체	560	3.78	0.74					

** p<.01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높은 수준의 교육투자가 국민 소득 수준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교육투자가 국민 소득 수준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고등학교 계열별로는 인문계 교사가 실업계 교사보다 교육투자가 국민 소득 수준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고등학교 계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교육투자가 국민 소득 수준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67, p<.01). 교육경력별로는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교육투자가 국민 소득 수준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4.05$, $p<.01$). 학력별로는 대학원졸 교사가 대졸 교사보다 교육투자가 국민 소득 수준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96$, $p<.01$).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교육투자로 인해 국민 소득이 향상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교사와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그리고 대학원졸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교육투자가 국민 소득 수준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 부와 소득 증대 정도

교육에 대한 투자가 사회적 부와 소득 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6>과 같이 전체 평균이 3.63으로, 교사들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사회적 부와 소득 증대를 가져온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사회적 부와 소득 증대 정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Scheffe	
학교급별	초등학교	179	3.74	0.74	4.07*	0.018	①≠②
	중학교	172	3.53	0.67			
	고등학교	209	3.61	0.72			
	고등학교 실업계	113	3.49	0.72	-2.79**	0.006	-
성별	계열 인문계	96	3.76	0.69	0.20	0.843	-
	남	236	3.64	0.73			
경력	여	324	3.62	0.70	4.01**	0.008	②≠④
	10년 미만	120	3.60	0.76			
	10~20년 미만	241	3.55	0.69			
	20~30년 미만	153	3.69	0.67			
학력	30년 이상	46	3.91	0.78	-2.33*	0.020	-
	대졸	351	3.58	0.73			
	대학원졸(제)	209	3.72	0.68			
전체	560	3.63	0.71				

* $p<.05$, ** $p<.01$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사회적 부와 소득 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4.07, p<.05$). 또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교 계열별로는 인문계 교사가 실업계 교사보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사회적 부와 소득 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계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79, p<.01$).

성별로는 남자교사와 여자교사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경력별로는 30년 이상 교사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사회적 부와 소득 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0~20년 미만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4.01, p<.01$). 또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10~20년 미만 교사와 30년 이상 교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력별로는 대학원졸 교사가 대졸 교사보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사회적 부와 소득 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33, p<.05$).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사회적 부와 소득 증대를 가져온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교사와 인문계 교사, 교육경력이 30년 이상인 교사, 그리고 대학원졸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사회적 부와 소득 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장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의 수단 정도

장래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투자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7>과 같이 전체 평균이 3.88로, 교사들은 장래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교육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장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의 수단 정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Scheffe	
학교급별	초등학교	179	3.92	0.69	0.45	0.640	-
	중학교	172	3.86	0.70			
	고등학교	209	3.85	0.74	-1.94	0.054	-
	고등학교 실업계	113	3.76	0.76			
	계열 인문계	96	3.96	0.71			
성별	남	236	3.84	0.78	-0.88	0.381	-
	여	324	3.90	0.66			
경력	10년 미만	120	3.80	0.77	1.15	0.328	-
	10~20년 미만	241	3.85	0.68			
	20~30년 미만	153	3.94	0.70			
	30년 이상	46	3.96	0.71			
학력	대졸	351	3.84	0.71	-1.61	0.107	-
	대학원졸(재)	209	3.94	0.71			
전체	560	3.88	0.71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보다 장래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 정도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고등학교 계열별로는 인문계 교사가 실업계 교사보다 장래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 정도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고등학교 계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별로는 여자교사가 남자교사보다 장래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 정도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경력별로는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장래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 정도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학력별로는 대학원졸 교사가 대졸 교사보다 장래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 정도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장래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급별과 고등학교 계열, 성별, 교육 경력, 그리고 학력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인간자본론에 대한 인식

1) 노동의 생산질 향상 정도

교육이 노동의 생산적인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8>과 같이 전체 평균이 3.88로, 교사들은 교육이 노동의 생산적인 질을 향상시킨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 노동의 생산질 향상 정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Scheffe	
학교급별	초등학교	179	3.93	0.79	1.29	0.277	-
	중학교	172	3.81	0.80			
	고등학교	209	3.91	0.68			
	고등학교 계열	113	3.84	0.63			
성별	남	236	3.91	0.73	0.73	0.468	-
	여	324	3.86	0.77			
경력	10년 미만	120	3.76	0.81	4.96**	0.002	①≠③ ②≠③
	10~20년 미만	241	3.81	0.75			
	20~30년 미만	153	4.05	0.69			
	30년 이상	46	4.04	0.70			
학력	대졸	351	3.82	0.77	-2.65**	0.008	-
	대학원졸(제)	209	3.99	0.71			
전체	560	3.88	0.75				

** p<.01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사가 중학교 교사보다 교육이 노동의 생산적인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 급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고등학교 계열별로는 인문계 교사가 실업계 교사보다 교육이 노동의 생산적인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교육이 노동의 생산적인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교육경력별로는 20년 이상 교사가 교육이 노동의 생산적인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0년 미만 교사가 10~20년 미만 교사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4.96, p<.01$). 또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10년 미만 교사와 20~30년 이상 교사, 10~20년 미만 교사와 20~30년 미만 교사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력별로는 대학원졸 교사가 대졸 교사보다 교육이 노동의 생산적인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2.65, p<.01$).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교육이 노동의 생산적인 질을 향상시킨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육경력이 20년 이상인 교사와 학력이 대학원졸인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교육이 노동의 생산적인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제성장의 원천

경제성장의 원천으로서 학교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9>와 같이 전체 평균이 3.49로, 교사들은 학교교육이 경제성장의 원천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경제성장의 원천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Scheffe	
학교급별	초등학교	179	3.52	0.74	0.83	0.435	-
	중학교	172	3.43	0.70			
	고등학교	209	3.52	0.77	0.46	0.644	-
	고등학교 실업계	113	3.54	0.73			
	계열 인문계	96	3.49	0.82			
성별	남	236	3.57	0.77	2.21*	0.027	-
	여	324	3.43	0.72			
경력	10년 미만	120	3.35	0.75	3.09*	0.027	-
	10~20년 미만	241	3.47	0.74			
	20~30년 미만	153	3.59	0.71			
	30년 이상	46	3.63	0.80			
학력	대졸	351	3.45	0.76	-1.69	0.091	-
	대학원졸(제)	209	3.56	0.71			
전체	560	3.49	0.74				

* p<.05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가 중학교 교사보다 경제성장의 원천으로서 학교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등학교 계열별로는 실업계 교사가 인문계 교사보다 경제성장의 원천으로서 학교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경제성장의 원천으로서 학교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21, p<.05). 교육경력별로는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경제성장의 원천으로서 학교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09, p<.05). 학력별로는 대학원졸 교사가 대졸 교사보다 경제성장의 원천으로서 학교교육에 대해 긍정적으

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학교교육이 경제성장의 원천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경제성장의 원천으로써 학교교육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취학률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상급학교 취학률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대해 교사들이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0>과 같이 전체 평균이 3.52로, 교사들은 상급학교의 취학률은 경제 성장과 밀접한 상관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 취학률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Scheffe		
학교급별	초등학교	179	3.61	0.79	2.38	0.093	-	
	중학교	172	3.42	0.83				
	고등학교	209	3.53	0.90				
	고등학교 계열	실업계	113	3.42	0.87	-2.03*	0.044	-
		인문계	96	3.67	0.91			
성별	남	236	3.45	0.90	-1.74	0.082	-	
	여	324	3.58	0.80				
경력	10년 미만	120	3.60	0.76	1.03	0.377	-	
	10~20년 미만	241	3.54	0.84				
	20~30년 미만	153	3.48	0.87				
	30년 이상	46	3.37	0.97				
학력	대졸	351	3.49	0.84	-1.20	0.229	-	
	대학원졸(제)	209	3.58	0.86				
전체	560	3.52	0.85					

* p<.05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상급학교 취학률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대

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상급학교 취학률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고등학교 계열별로는 인문계 교사가 실업계 교사보다 상급학교 취학률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계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03, p<.05$).

성별로는 여자교사가 남자교사보다 상급학교 취학률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교육경력별로는 교육경력이 낮을수록 상급학교 취학률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력별로는 대학원졸 교사가 대졸 교사보다 상급학교 취학률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상급학교 취학률과 경제성장이 밀접한 상관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문계 교사사 실업계 교사보다 상급학교 취학률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개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정도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개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1>과 같이 전체 평균이 3.55로, 교사들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개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 개인의 소득증대에의 기여 정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Scheffe		
학교급별	초등학교	179	3.65	0.75	3.71*	0.025	①≠②	
	중학교	172	3.44	0.75				
	고등학교	209	3.57	0.72				
	고등학교 계열	실업계	113	3.60	0.61	0.69	0.492	-
		인문계	96	3.53	0.83			
성별	남	236	3.62	0.74	1.78	0.076	-	
	여	324	3.51	0.74				
경력	10년 미만	120	3.54	0.73	0.91	0.437	-	
	10~20년 미만	241	3.57	0.72				
	20~30년 미만	153	3.50	0.78				
	30년 이상	46	3.71	0.76				
학력	대졸	351	3.50	0.76	-2.09*	0.037	-	
	대학원졸(재)	209	3.64	0.70				
전체	560	3.55	0.74					

* p<.05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개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개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급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712, p<.05). 또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교 계열별로는 실업계 교사가 인문계 교사보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개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계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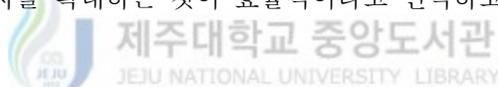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개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경력별로는 30년 이상 교사가 30년 미만 교사보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개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

았다. 학력별로는 대학원졸 교사가 대졸 교사보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개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09, p<.05$).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개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교사와 대학원졸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개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자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2>와 같이 전체 평균이 4.25로, 교사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Scheffe		
학교급별	초등학교	179	4.16	0.74	2.55	0.079	-	
	중학교	172	4.32	0.66				
	고등학교	209	4.28	0.73				
	고등학교	실업계	113	4.25	0.69	-0.74	0.463	-
		계열 인문계	96	4.32	0.79			
성별	남	236	4.31	0.70	1.57	0.117	-	
	여	324	4.21	0.73				
경력	10년 미만	120	4.10	0.74	2.66*	0.048	-	
	10~20년 미만	241	4.27	0.75				
	20~30년 미만	153	4.34	0.65				
	30년 이상	46	4.26	0.68				
학력	대졸	351	4.15	0.73	-4.33***	0.000	-	
	대학원졸(제)	209	4.42	0.67				
전체	560	4.25	0.72					

* $p<.05$, *** $p<.001$

학교 급별로는 중학교 교사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자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교 교사는 고등학교 교사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등학교 계열별로는 인문계 교사가 실업계 교사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자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자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교육경력별로는 20~30년 미만 교사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자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0년 미만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66, $p < .05$). 학력별로는 대학원졸 교사가 대졸 교사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자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 = -4.33$, $p < .001$).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경력이 20~30년 미만인 교사와 대학원졸인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투자비용에 대한 경제적 회수 정도

교육투자의 주된 동인으로서 투자비용에 대한 경제적 회수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3>과 같이 전체 평균이 2.98로, 교사들은 교육투자의 주된 동인으로서 투자비용에 대한 경제적 회수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투자비용에 대한 경제적 회수 정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Scheffe	
학교급별	초등학교	179	3.18	0.92	6.03**	0.003	①≠② ①≠③
	중학교	172	2.92	0.96			
	고등학교	209	2.86	0.93			
	고등학교 실업계	113	2.81	0.88			
계열	인문계	96	2.92	0.98	-0.80	0.427	-
	남	236	2.84	0.94	-2.99**	0.003	-
성별	여	324	3.08	0.93			
경력	10년 미만	120	3.11	0.95	0.93	0.426	-
	10~20년 미만	241	2.94	0.93			
	20~30년 미만	153	2.96	0.95			
	30년 이상	46	2.96	1.01			
학력	대졸	351	3.01	0.93	0.95	0.342	-
	대학원졸(제)	209	2.93	0.97			
전체	560	2.98	0.94				

** p<.01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투자의 주된 동인으로서 투자비용에 대한 경제적 회수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교사가 중학교 교사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급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6.03, p<.01). 또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교 계열별로는 인문계 교사가 실업계 교사보다 교육투자의 주된 동인으로서 투자비용에 대한 경제적 회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고등학교 계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별로는 여자교사가 남자교사보다 교육투자의 주된 동인으로서 투자비용에 대한 경제적 회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99, p<.01). 교육경력별로는 10년 미만 교사가 10년 이상 교사보다 교육투자의 주된 동인으로서 투자비용에 대한 경제적 회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학력별로는 대졸 교사가 대학원졸 교사보다

교육투자의 주된 동인으로서 투자비용에 대한 경제적 회수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교육투자의 주된 동인으로서 투자비용에 대한 경제적 회수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교사와 여자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교육투자의 주된 동인으로서 투자비용에 대한 경제적 회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학력에 따른 임금의 차이

학력에 따른 임금의 차이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4>와 같이 전체 평균이 2.87로, 학력에 따른 임금의 차이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 학력에 따른 임금의 차이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t(F)	p	Scheffe	
학교 급별	초등학교	179	2.94	0.98	1.08	0.339	-	
	중학교	172	2.79	0.89				
	고등학교	209	2.87	0.95				
	고등학교 계열	실업계	113	2.85	0.90	-0.27	0.786	-
		인문계	96	2.89	1.00			
성별	남	236	2.87	0.97	0.06	0.956	-	
	여	324	2.86	0.95				
경력	10년 미만	120	2.90	0.93	0.60	0.614	-	
	10~20년 미만	241	2.81	0.93				
	20~30년 미만	153	2.93	0.98				
	30년 이상	46	2.83	0.93				
학력	대졸	351	2.81	0.89	-1.77	0.078	-	
	대학원졸(제)	209	2.96	1.01				
전 체		560	2.87	0.94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학력에 따른 임금의 차이에 대해 가장 긍정적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학력에 따른 임금의 차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고등학교 계열별로는 실업계 교사와 인문계 교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교사와 여자교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경력별로는 10년 미만 교사와 20~30년 미만 교사가 10~20년 미만 교사와 30년 이상 교사보다 학력에 따른 임금의 차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학력별로는 대학원졸 교사가 대졸 교사보다 학력에 따른 임금의 차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학력에 따른 임금의 차이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급별과 고등학교 계열, 성별, 교육경력, 그리고 학력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8) 고학력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 정도

고학력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 정도에 대해 교사들이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5>와 같이 전체 평균이 2.84로, 교사들은 고학력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 정도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 고학력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 정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Scheffe	
학교급별	초등학교	179	2.75	0.98	1.12	0.328	-
	중학교	172	2.90	0.95			
	고등학교	209	2.86	1.02			
	고등학교 실업계	113	2.71	0.95			
계열	인문계	96	3.03	1.08	-2.30*	0.022	-
	실업계	96	2.71	0.95			
성별	남	236	2.98	0.99	3.03**	0.003	-
	여	324	2.73	0.98			
경력	10년 미만	120	2.71	0.93	1.17	0.321	-
	10~20년 미만	241	2.88	0.98			
	20~30년 미만	153	2.90	1.04			
	30년 이상	46	2.74	1.04			
학력	대졸	351	2.77	0.97	-1.89	0.059	-
	대학원졸(제)	209	2.74	1.01			
전체	560	2.84	0.99				

* p<.05, ** p<.01

학교 급별로는 중학교 교사가 고학력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 정도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 급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고등학교 계열별로는 인문계 교사가 실업계 교사보다 고학력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계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30, p<.05).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고학력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03, p<.01). 교육경력별로는 20~30년 미만 교사가 고학력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 정도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0년 미만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력별로는 대졸 교사와 대학원졸 교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고학력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 정도에 대해 그다지 긍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문계 교사와 남자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고학력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경제발전을 위한 직업교육의 강화 필요성

경제발전을 위한 직업교육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6>과 같이 전체 평균이 3.87로, 교사들은 경제발전을 위해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표 IV-16> 경제발전을 위한 직업교육의 강화 필요성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Scheffe	
학교급별	초등학교	179	3.88	0.77	2.05	0.129	-
	중학교	172	3.78	0.69			
	고등학교	209	3.94	0.74			
고등학교 계열	실업계	113	3.96	0.72	0.57	0.572	-
	인문계	96	3.91	0.77			
성별	남	236	4.00	0.69	3.73***	0.000	-
	여	324	3.77	0.75			
경력	10년 미만	120	3.63	0.75	13.21***	0.000	①≠③ ①≠④ ②≠③ ②≠④
	10~20년 미만	241	3.80	0.77			
	20~30년 미만	153	4.07	0.59			
	30년 이상	46	4.22	0.70			
학력	대졸	351	3.80	0.77	-2.96**	0.003	-
	대학원졸(제)	209	3.99	0.66			
전체	560	3.87	0.74				

** p<.01, *** p<.001

학교 급별로는 고등학교 교사가 경제발전을 위한 직업교육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교사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고등학교 계열별로는 실업계 교사가 인문계 교사보다 경제발전을 위한 직업교육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계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경제발전을 위한 직업교육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73, p<.001$). 교육경력별로는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경제발전을 위한 직업교육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3.21, p<.001$). 또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10년 미만 교사와 20~30년 미만 교사, 10년 미만 교사와 30년 이상 교사, 10~20년 미만 교사와 20~30년 미만 교사, 10~20년 미만 교사와 30년 이상 교사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력별로는 대학원졸 교사가 대졸 교사보다 경제발전을 위한 직업교육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96, p<.01$).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경제발전을 위해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교사와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대학원졸인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경제발전을 위한 직업교육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선진국의 교육이론과 실제 도입·적용

자국의 교육발전을 위한 선진국의 교육이론과 실제 도입·적용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7>과 같이 전체 평균이 2.99로, 교사들은 자국의 교육발전을 위한 선진국의 교육이론과 실제 도입·적용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 선진국의 교육이론과 실제 도입·적용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Scheffe		
학교급별	초등학교	179	3.12	0.96	2.41	0.091	-	
	중학교	172	2.95	0.82				
	고등학교	209	2.92	0.99	-1.37	0.171	-	
	고등학교 계열	실업계	113	2.83				0.96
		인문계	96	3.02				1.03
성별	남	236	2.97	0.91	-0.40	0.693	-	
	여	324	3.01	0.95				
경력	10년 미만	120	2.97	0.95	3.29*	0.021	-	
	10~20년 미만	241	2.88	0.92				
	20~30년 미만	153	3.10	0.92				
	30년 이상	46	3.28	0.96				
학력	대졸	351	2.95	0.92	-1.26	0.207	-	
	대학원졸(제)	209	3.06	0.96				
전체	560	2.99	0.93					

* p<.05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보다 우리나라의 교육 발전을 위한 선진국의 교육이론과 실제 도입·적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 급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고등학교 계열별로는 인문계 교사가 실업계 교사보다 우리나라의 교육 발전을 위한 선진국의 교육이론과 실제 도입·적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는 여자교사가 남자교사보다 우리나라의 교육 발전을 위한 선진국의 교육이론과 실제 도입·적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교육경력별로는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우리나라의 교육 발전을 위한 선진국의 교육이론과 실제 도입·적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F=3.29, p<.05$). 학력별로는 대학원졸 교사가 대졸 교사보다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한 선진국의 교육이론과 실제 도입·적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한 선진국의 교육이론과 실제 도입·적용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경력이 많은 교사일수록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한 선진국의 교육이론과 실제 도입·적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사회전반의 생산성 향상

학교교육의 사회전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수 불가결성에 대해 교사들이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8>과 같이 전체 평균이 3.81로, 교사들은 학교교육이 사회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8> 사회전반의 생산성 향상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t(F)	p	Scheffe	
학교급별	초등학교	179	3.85	0.69	-2.94**	0.004	-
	중학교	172	3.81	0.74			
	고등학교	209	3.78	0.76			
	고등학교 실업계	113	3.65	0.81			
계열	인문계	96	3.95	0.67	1.15	0.252	-
	남	236	3.86	0.77			
성별	여	324	3.78	0.71	2.59	0.052	-
	10년 미만	120	3.78	0.69			
경력	10~20년 미만	241	3.75	0.73	-2.73**	0.007	-
	20~30년 미만	153	3.88	0.77			
	30년 이상	46	4.04	0.67			
학력	대졸	351	3.75	0.73	-2.73**	0.007	-
	대학원졸(제)	209	3.92	0.73			
전 체	560	3.81	0.73				

** $p<.01$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교육의 사회전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수 불가결성에 대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교사가 중학교 교사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등학교 계열별로는 인문계 교사가 실업계 교사보다 학교교육의 사회전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수 불가결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계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94, p<.01$).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학교교육의 사회전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수 불가결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교육경력별로는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학교교육의 사회전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수 불가결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학력별로는 대학원졸 교사가 대졸 교사보다 학교교육의 사회전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수 불가결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73, p<.01$).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학교교육이 사회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문계 교사와 학력이 대학원졸인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학교교육의 사회전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수 불가결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평등한 사회구조 창출에 기여

학교교육의 평등한 사회구조 창출 기여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들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19>와 같이 전체 평균이 3.31로, 교사들은 학교교육의 평등한 사회구조 창출 기여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9> 평등한 사회 구조에 기여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t(F)	p	Scheffe	
학교급별	초등학교	179	3.27	0.95	0.35	0.708	-
	중학교	172	3.30	0.92			
	고등학교	209	3.35	1.02			
	고등학교 계열	113	3.26	1.00			
성별	실업계 인문계	96	3.46	1.04	-1.43	0.154	-
	남	236	3.48	1.00	3.59***	0.000	-
여	324	3.19	0.92				
경력	10년 미만	120	3.26	0.95	3.27*	0.021	-
	10~20년 미만	241	3.20	0.98			
	20~30년 미만	153	3.44	0.93			
학력	30년 이상	46	3.57	0.98	-1.49	0.137	-
	대졸	351	3.26	0.96			
	대학원졸(재)	209	3.39	0.97			
전체	560	3.31	0.97				

* p<.05, *** p<.001

학교 급별로는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교육의 평등한 사회구조 창출 기여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교 교사가 중학교 교사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고등학교 계열별로는 인문계 교사가 실업계 교사보다 학교교육의 평등한 사회구조 창출 기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계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학교교육의 평등한 사회구조 창출 기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59, p<.001). 교육경력별로는 30년 이상 교사가 학교교육의 평등한 사회구조 창출 기여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0~20년 미만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학교교육의 평등한 사회구조 창출 기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27, p<.05). 학력별로는 대학원졸 교사가 대졸 교사보다 학교교육의 평등한 사회구조 창출 기여에 대해 긍정적

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학교교육의 평등한 사회구조 창출 기여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교사와 교육경력이 30년 이상인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학교교육의 평등한 사회구조 창출 기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근대적인 사고 방식 함양

교육이 근대적인 사고방식 함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0>과 같이 전체 평균이 3.84로, 교사들은 교육이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0> 근대적인 사고 방식 함양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Scheffe		
학교급별	초등학교	179	3.88	0.74	1.95	0.143	-	
	중학교	172	3.75	0.72				
	고등학교	209	3.88	0.68				
	고등학교 계열	실업계	113	3.80	0.67	-1.83	0.069	-
		인문계	96	3.97	0.69			
성별	남	236	3.89	0.68	1.45	0.148	-	
	여	324	3.80	0.74				
경력	10년 미만	120	3.75	0.78	5.00**	0.002	①≠③ ②≠③	
	10~20년 미만	241	3.76	0.71				
	20~30년 미만	153	4.00	0.63				
	30년 이상	46	3.98	0.71				
학력	대졸	351	3.80	0.72	-1.54	0.124	-	
	대학원졸(제)	209	3.90	0.70				
전체	560	3.84	0.71					

** p<.01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가 중학교 교사보다 교육이 근대적인 사고방식 함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 급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고등학교 계열별로는 인문계 교사가 실업계 교사보다 교육이 근대적인 사고방식 함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교육이 근대적인 사고방식 함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교육경력별로는 20~30년 미만 교사가 교육이 근대적인 사고방식 함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년 미만 교사가 30년 이상 교사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5.00, p<.01$). 또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10년 미만 교사와 20~30년 미만 교사, 10~20년 미만 교사와 20~30년 미만 교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력별로는 대학원졸 교사가 대졸 교사보다 교육이 근대적인 사고방식 함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교육이 근대적인 사고방식 함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경력이 20~30년 미만인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교육이 근대적인 사고방식 함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비판론에 대한 인식

1) 학생선발 장치

학교교육의 주된 기능으로서 학생선발 장치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1>과 같이 전체 평균이 2.69로, 교사들은 학교교육의 주된 기능으로서 학생선발 장치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 학생선발 장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Scheffe	
학교급별	초등학교	179	2.70	0.90	0.34	0.710	-
	중학교	172	2.72	0.88			
	고등학교	209	2.65	0.84			
	고등학교 실업계	113	2.64	0.78			
	고등학교 계열 인문계	96	2.67	0.91			
성별	남	236	2.65	0.86	-0.95	0.342	-
	여	324	2.72	0.88			
경력	10년 미만	120	2.71	0.87	0.11	0.957	-
	10~20년 미만	241	2.68	0.89			
	20~30년 미만	153	2.67	0.86			
	30년 이상	46	2.74	0.83			
학력	대졸	351	2.72	0.84	0.91	0.364	-
	대학원졸(재)	209	2.65	0.92			
전체	560	2.69	0.89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학교교육의 주된 기능으로서 학생선발 장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 급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고등학교 계열별로는 실업계 교사와 인문계 교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는 여자교사가 남자교사보다 학교교육의 주된 기능으로서 학생선발 장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경력별로는 30년 이상 교사가 학교교육의 주된 기능

으로서 학생선발 장치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0~30년 미만 교사는 10년 미만 교사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학력별로는 대졸 교사가 대학원졸 교사보다 학교교육의 주된 기능으로서 학생선발 장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학교교육의 주된 기능으로서 학생선발 장치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급별과 고등학교 계열, 성별, 교육경력, 그리고 학력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학위 소유 여부나 졸업장 중시

취업에서 학위 소유 여부나 졸업장 중시에 대해 교사들이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2>와 같이 전체 평균이 3.34로, 교사들은 취업에서 학위 소유 여부나 졸업장 중시에 대해 그다지 높게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학위 소유 여부나 졸업장 중시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Scheffe	
학교급별	초등학교	179	3.47	0.95	3.98*	0.019	①≠②
	중학교	172	3.19	0.94			
	고등학교	209	3.34	0.93			
고등학교 계열	실업계	113	3.32	0.93	-0.44	0.664	-
	인문계	96	3.38	0.94			
성별	남	236	3.30	0.95	-0.83	0.405	-
	여	324	3.36	0.94			
경력	10년 미만	120	3.32	0.93	0.14	0.935	-
	10~20년 미만	241	3.33	0.94			
	20~30년 미만	153	3.37	0.93			
학력	30년 이상	46	3.28	1.09	1.22	0.225	-
	대졸	351	3.37	0.94			
	대학원졸(재)	209	3.27	0.95			
전체	560	3.34	0.95				

* $p < .05$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취업에서 학위 소유 여부나 졸업장 중시에 대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 교사는 고등학교 교사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급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98, p < .05$). 또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교 계열별로는 인문계 교사가 실업계 교사보다 취업에서 학위 소유 여부나 졸업장 중시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별로는 여자교사가 남자교사보다 취업에서 학위 소유 여부나 졸업장 중시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교육경력별로는 20~30년 미만 교사가 취업에서 학위 소유 여부나 졸업장 중시에 대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0년 이상 교사가 20년 미만 교사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력별로는 대졸 교사가 대학원졸 교사보다 취업에서 학위 소유 여부나 졸업장 중시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취업에서 학위 소유 여부나 졸업장 중시에 대해 그다지 높게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교사보다 중등교사보다 취업에서 학위 소유 여부나 졸업장 중시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기존의 사회질서 정당화

학교교육의 기존의 사회질서 정당화 기능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3>과 같이 전체 평균이 3.05로, 교사들은 학교교육의 기존의 사회질서 정당화 기능에 대해 그다지 높게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 기존의 사회질서 정당화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Scheffe		
학교급별	초등학교	179	3.25	0.93	8.46***	0.000	①≠③	
	중학교	172	3.08	0.93				
	고등학교	209	2.86	0.98				
	고등학교 계열	실업계	113	2.98	0.89	1.99*	0.048	-
		인문계	96	2.71	1.08			
성별	남	236	2.93	0.97	-2.61**	0.009	-	
	여	324	3.14	0.95				
경력	10년 미만	120	3.08	0.94	0.86	0.462	-	
	10~20년 미만	241	3.07	0.94				
	20~30년 미만	153	2.95	1.00				
	30년 이상	46	3.17	1.00				
학력	대졸	351	3.11	0.95	1.71	0.087	-	
	대학원졸(재)	209	2.96	0.98				
전체	560	3.05	0.96					

* p<.05, ** p<.01, *** p<.001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교육의 기존의 사회질서 정당화 기능에 대해 가장 높은 인식을 보였고, 고등학교 교사가 중학교 교사보다 낮은 인식을 보였으며, 학교 급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8.46, p<.001). 또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교 계열별로는 실업계 교사가 인문계 교사보다 학교교육의 기존의 사회질서 정당화 기능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계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1.99, p<.05).

성별로는 여자교사가 남자교사보다 학교교육의 기존의 사회질서 정당화 기능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61, p<.01). 교육경력별로는 30년 이상 교사가 학교교육의 기존의 사회질서 정당화 기능에 대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30년 미만 교사가 20년 미만 교사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학력별로는 대졸 교사가 대학원졸 교사보다 학교교육의 기존의 사회질서 정당화 기능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학교교육의 기존의 사회질서 정당화 기능에 대해 그다지 높게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교사와 실업계 교사, 그리고 여자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학교교육의 기존의 사회질서 정당화 기능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문화적 다양성 추구에 기여 정도

학교교육이 문화적 다양성 추구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4>와 같이 전체 평균이 3.89로, 교사들은 학교교육이 문화적 다양성 추구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4> 문화적 다양성 추구에 기여 정도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t(F)	p	Scheffe	
학교급별	초등학교	179	3.98	0.64	2.10	0.123	-	
	중학교	172	3.83	0.68				
	고등학교	209	3.87	0.78				
	고등학교	실업계	113	3.75	0.79	-2.32*	0.022	-
		계열 인문계	96	4.00	0.75			
성별	남	236	3.83	0.74	-1.71	0.088	-	
	여	324	3.94	0.68				
경력	10년 미만	120	3.89	0.79	0.75	0.524	-	
	10~20년 미만	241	3.85	0.73				
	20~30년 미만	153	3.93	0.60				
	30년 이상	46	3.98	0.68				
학력	대졸	351	3.88	0.69	-0.34	0.732	-	
	대학원졸(제)	209	3.90	0.73				
전 체		560	3.89	0.71				

* p<.05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교육이 문화적 다양성 추구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등학교 계열별로는 인문계 교사가 실업계 교사보다 학교교육이 문화적 다양성 추구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계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32, p<.05$).

성별로는 여자교사가 남자교사보다 학교교육이 문화적 다양성 추구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교육경력별로는 30년 이상 교사가 학교교육이 문화적 다양성 추구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0~20년 미만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학력별로는 대졸 교사와 대학원졸 교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학교교육이 문화적 다양성 추구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문계 교사가 실업계 교사보다 학교교육이 문화적 다양성 추구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엘리트 우월감의 사회발전 저해성

엘리트 우월감이 사회발전 저해성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5>와 같이 전체 평균이 3.47로, 교사들은 엘리트 우월감이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5> 엘리트 우월감의 사회발전 저해성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Scheffe	
학교급별	초등학교	179	3.52	0.86	1.02	0.360	-
	중학교	172	3.40	0.79			
	고등학교	209	3.50	0.94	-0.77	0.442	-
	고등학교 실업계	113	3.45	0.91			
	고등학교 계열 인문계	96	3.55	0.98			
성별	남	236	3.49	0.91	0.43	0.671	-
	여	324	3.46	0.83			
경력	10년 미만	120	3.57	0.82	1.83	0.141	-
	10~20년 미만	241	3.51	0.85			
	20~30년 미만	153	3.39	0.91			
	30년 이상	46	3.28	0.93			
학력	대졸	351	3.48	0.84	0.09	0.928	-
	대학원졸(제)	209	3.47	0.91			
전체	560	3.47	0.87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가 중학교 교사보다 엘리트 우월감이 사회발전 저해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고등학교 계열별로는 인문계 교사가 실업계 교사보다 엘리트 우월감이 사회발전 저해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계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교사와 여자교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경력별로는 교육경력이 적을수록 엘리트 우월감이 사회발전 저해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엘리트 우월감이 사회발전 저해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급별과 고등학교 계열, 성별, 교육경력, 그리고

학력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외부편익 효과에 대한 인식

1) 사회 전반의 복지 향상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가 사회 전반의 복지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6>과 같이 전체 평균이 3.87로, 교사들은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가 사회 전반의 복지를 향상시킨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6> 사회 전반의 복지 향상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Scheffe		
학교급별	초등학교	179	3.91	0.77	2.29	0.103	-	
	중학교	172	3.77	0.71				
	고등학교	209	3.91	0.66				
	고등학교 계열	실업계	113	3.84	0.56	-1.75	0.082	-
		인문계	96	4.00	0.75			
성별	남	236	3.90	0.71	0.93	0.351	-	
	여	324	3.85	0.71				
경력	10년 미만	120	3.74	0.73	3.55*	0.014	①≠③	
	10~20년 미만	241	3.83	0.69				
	20~30년 미만	153	4.01	0.64				
	30년 이상	46	3.93	0.90				
학력	대졸	351	3.80	0.73	-2.93**	0.004	-	
	대학원졸(재)	209	3.98	0.67				
전체	560	3.87	0.71					

* p<.05, ** p<.01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가 중학교 교사보다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가 사회전반의 복지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고등학교 계열별로는 인문계 교사가 실업계 교사보다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가 사회전반의 복지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계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가 사회전반의 복지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교육경력별로는 20~30년 미만 교사가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가 사회전반의 복지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0년 미만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55, p<.05$). 또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10년 미만 교사와 20~30년 미만 교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력별로는 대학원졸 교사가 대졸 교사보다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가 사회전반의 복지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93, p<.01$).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가 사회전반의 복지를 향상시킨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경력이 20~30년 미만인 교사와 학력이 대학원졸인 교사가 다른 교사보다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가 사회전반의 복지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 주민에게 혜택과 편익 제공 정도

교육수혜자가 비교육 수혜자와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혜택과 편익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7>과 같이 전체 평균이 3.06으로, 교사들은 교육수혜자가 비교육 수혜자와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혜택과 편익에 대

해 그다지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7> 지역 주민에게 혜택과 편익 제공 정도

구 분	n	평균	표준 편차	t(F)	p	Scheffe	
학교급별	초등학교	179	3.20	0.85	4.23*	0.015	①≠②
	중학교	172	2.94	0.81			
	고등학교	209	3.05	0.90			
	고등학교 계열	113	3.06	0.91			
성별	남	236	3.13	0.89	1.51	0.131	-
	여	324	3.02	0.84			
경력	10년 미만	120	3.01	0.91	1.48	0.219	②≠④
	10~20년 미만	241	3.00	0.90			
	20~30년 미만	153	3.16	0.77			
	30년 이상	46	3.17	0.80			
학력	대졸	351	3.06	0.84	-0.20	0.845	-
	대학원졸(제)	209	3.07	0.90			
전 체	560	3.06	0.86				

* p<.05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수혜자가 비교육 수혜자와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혜택과 편익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 교사는 고등학교 교사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급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4.23, p<.05). 또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교 계열별로는 실업계 교사와 인문계 교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교육수혜자가 비교육 수혜자와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혜택과 편익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교육경력별로는 20년 이상 교사가 20년 미만 교사보다 교육수혜자가 비교육 수혜자와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혜택과 편익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10~20년 미만 교사와 30년 이상 교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력별로는 대졸 교사가 대학원졸 교사보다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교육수혜자가 비교육 수혜자와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혜택과 편익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교사가 중등학교 교사보다 교육수혜자가 비교육 수혜자와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혜택과 편익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 전반적인 문제 해결과 정치·경제 체제 제반 안정 정도

교육이 사회 전반적인 문제 해결과 정치·경제 체제 제반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8>과 같이 전체 평균이 3.58로, 교사들은 교육이 사회 전반적인 문제 해결과 정치·경제 체제 제반에 대해 안정을 유지하게 해준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8> 사회 전반적인 문제 해결과 정치·경제 체제 제반 안정 정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Scheffe		
학교급별	초등학교	179	3.63	0.75	1.54	0.214	-	
	중학교	172	3.50	0.72				
	고등학교	209	3.61	0.71				
	고등학교 계열	실업계	113	3.56	0.69	-1.10	0.271	-
		인문계	96	3.67	0.74			
성별	남	236	3.67	0.70	2.36*	0.018	-	
	여	324	3.52	0.74				
경력	10년 미만	120	3.44	0.74	2.69*	0.045	-	
	10~20년 미만	241	3.58	0.69				
	20~30년 미만	153	3.63	0.76				
	30년 이상	46	3.76	0.74				
학력	대졸	351	3.55	0.72	-1.17	0.245	-	
	대학원졸(제)	209	3.63	0.74				
전체	560	3.58	0.73					

* p<.05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가 중학교 교사보다 교육이 사회 전반적인 문제 해결과 정치·경제 체제 제반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고등학교 계열별로는 인문계 교사가 실업계 교사보다 교육이 사회 전반적인 문제 해결과 정치·경제 체제 제반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계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교사가 여자교사보다 교육이 사회 전반적인 문제 해결과 정치·경제 체제 제반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36, p<.05$). 교육경력별로는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교육이 사회 전반적인 문제 해결과 정치·경제 체제 제반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69, p<.05$).

학력별로는 대학원졸 교사가 대졸 교사보다 교육이 사회 전반적인 문제 해결과 정치·경제 체제 제반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교사들은 교육이 사회 전반적인 문제 해결과 정치·경제 체제 제반에 대해 안정을 유지하게 해준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교사와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교육이 사회 전반적인 문제 해결과 정치·경제 체제 제반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제주도 초, 중, 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지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 소득증대·분배에 대한 효과, 인간자본론, 비판론, 외부편익 효과의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해 학교 급별, 성별, 경력별, 학력별, 학교계열에 따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가를 조사 분석하여 교육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교육투자를 경제적 효과면에서 조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교육투자에 대한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대표적인 관점인 근대화 이론과 인적자본론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둘째, 교육 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해 제주도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학교 급별, 성별, 경력별,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밝힌다.

본 논문에서 설정한 연구 목적과 내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설문지 조사를 하였다. .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교사들의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정희가 연구 개발한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관한 질문지를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아 수정 보완 제작하였다.

측정영역은 위에 밝힌 다섯 가지 영역을 하위요인으로 하여 28문항으로 선정하여 제주도내 초등교사 190명, 중학교교사 190명, 고등학교 교사 24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며 그 중 560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처리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경제성장의 효과와 소득증대·분배효과, 인간자본론, 비판론, 외부편익효과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으로 자료를 처리하였고, 사후검증으로는 Scheffe 검증을 실시하여 학교 급별, 성별, 교육경력별, 학력에 따라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교사들의 인지도 조사 분석을 토대로 얻은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성장 효과 영역의 하위요인들의 설문내용 결과 교사들은 미래 기대에 부응한 경제적 수익을 위한 교육투자 정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경력별 ($p<.05$), 학력별($p<.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보였고, 취업구조 변화의 적응력 정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보였다($p<.01$). 또한 사회적 부 증식의 공헌정도에서는 경력별 ($p<.001$), 학력별($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보였고,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에 중추적 기능정도에서는 성별($p<.05$), 경력별과 학력별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보였다.

이처럼 인지도 분석 결과에서 교육투자의 경제성장 효과에 대한 인지도는 경력별, 학력,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국가 경쟁력을 키워 이만큼 성장을 이룬 것은 인적자원에의 투자에서 기인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소득증대·분배 효과 영역의 하위요인 내용에 대한 결과 교육투자로 인한 국민소득수준 향상정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학교 급별, 고등학교 계열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보이지는 않았으나 성별, 경력별, 학력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보였다($p<.01$). 사회적 부와 소득증대 정도에 대한 인식은 학교 급별과 학력별($p<.05$)에서는, 계열별($p<.01$)에서는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보였고, 장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의 수단 정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투자로 인해 국민소득 수준을 향상시켰고 사회적 부와 소득 증대를 가져오기는 하나 장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교육에 투자하는 것만

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으로 개인의 부와 사회적 부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외부효과까지 산출하는 개인차원 이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라 보여진다.

셋째, 인간자본론 영역의 하위요인 내용에 대한 결과는 노동의 생산질 향상 정도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교육경력과 학력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보였고($p < .01$), 경제성장의 원천으로서 학교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성별과 경력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보였고($p < .05$). 취학률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은 계열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보였고($p < .05$), 개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은 학교 급별, 학력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보였고($p < .05$).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에 대해 교사들은 경력별($p < .05$), 학력별($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보였고, 직업교육의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성별과 경력별($p < .001$)에서, 학력별($p <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투자비용에 대한 경제적 회수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은 학교 급별,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p < .01$), 학력에 따른 임금의 차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 정도 계열별($p < .05$), 성별($p < .01$)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경제발전을 위한 경력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보였고($p < .01$). 선진국의 교육이론과 실제 도입·적용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경력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보였고($p < .05$).

학교교육이 사회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수 불가결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고등학교 계열별과 학력별($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보였고, 학교교육이 평등한 사회구조 창출 기여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성별($p < .001$), 경력별($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보였고. 교육이 근대적인 사고 방식 함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경력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보였고($p < .01$).

넷째, 비판론 영역의 하위 요인 내용에 대한 결과는 학교교육의 주된 기능으

로서 학생선발 장치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그다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내 보였고, 취업에서 학위소유여부나 졸업장 중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학교 급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보였다($p < .05$). 학교교육이 기존 사회질서 정당화 기능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학교 급별 ($p < .001$), 고등학교 계열별($p < .05$)에서, 성별($p <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학교교육이 문화적 다양성 추구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고등학교 계열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보였으나 ($p < .05$) 엘리트 우월감이 사회발전 저해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

다섯째, 외부 편익 효과 영역의 하위요인 내용의 결과는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가 사회전반의 복지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경력별 ($p < .05$)에서, 학력별 ($p <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보였고, 교육수혜자가 비교육 수혜자와 지역주민에게 혜택과 편익 제공하는 혜택과 편익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학교 급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교육이 사회 전반적인 문제 해결과 정치·경제체제 제반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성별과 경력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2. 결론

본 연구에서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및 교사들의 인지도 조사로 얻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면에서 교사들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력이 많을수록, 대학원졸인 교사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이 만큼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고도의 기술을 가진 인적자원에서 기인했고 국가 경쟁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에의 투자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서 기인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우리나라처럼 부존자원이 없는 싱가포르가 지금과 같은 부를 증식한 국가로 급부상하게 된 것도 리관유 총리의 탁월한 지도력도 있었지만 일찍이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장·단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 교육에의 아낌없는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인적자원을 이용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교육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둘째, 소득증대·분배에 대한 효과에서 교육투자는 사회적 부와 장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교사들은 교육투자와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사회적 부와 소득증대를 가져온다는 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와 인문계교사, 교육경력 30년 이상인 교사, 대학원졸인 교사가 다른 교사들보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사회적 부와 소득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교사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교육에 대한 투자로 고도의 기술을 가진 인적자원으로 생산성이 증가되고 이로 인해 개인의 소득증대뿐 아니라 사회의 소득증대와 분배에 기여하고 있다고 믿고 있음을 입증해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비판론의 영역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긍정적이지 않으며 취업시 학위나 졸업장 중시보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선이 되어야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인적자본을 형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교육재정 투자의 순위 결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외부편익 효과에서는 사회전반의 복지향상 및 사회 전반적인 문제해결과 정치 경제체제에 안정을 가져온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 조사했는데 이에 대해 교사들은 교육에 대한 투자확대가 사회전반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사회 전반적인 문제해결과 정치·경제 체제제반에 대해 안정을 유지해준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수혜자가 비교육수혜자와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혜택과 편익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투자로 인해 사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사회복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이로 인해 정치·경제에 안정을 유지해주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인적자원을 형성해내지 못하고 있어 비교육 수혜자나 지역주민에게 편익이 골고루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추측해 본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육투자는 고도의 기술로 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경제 성장을 가져오게 되고 그로 인해 개인 및 사회적 부를 형성해서 사회 전반의 복지를 향상시켜 정치·경제에 안정을 가져온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해서 교육의 효용성 및 정당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교육이라함은 일반적으로 소비적인 측면과 투자적인 측면을 다 포함하지만, 교육투자는 인적자본론에 근거하여 교육비를 일종의 투자로 보고 교육투자를 통해 개인의 생애소득이 향상되며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본다면 국가차원에서 좀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인적자원을 형성하기 위해 학교 교육에 있어 합리적인 투자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사교육비가 아닌 공교육에로의 합리적인 재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교육투자의 효과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목표의 설정과 함께 재정투자 계획이 포함된 교육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 그에 알맞게 지역교육계획의 틀 속에서 교육투자계획 및 재정의 효율적인 분배 운영에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교육계획에서부터 투자계획까지의 실질적인 연계로 단위학교의 운영에 대한 자치가 확대되어 교육투자의 효율적인 분배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전문적인 인적자원을 배출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무섭(1983), 직업교육의 비용-효과/수익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경근(1995), “인적자본과 교육, 가족의 형성 및 경제성장: 인적자본의 본질과 효과에 대한 소고”, 교육재정·경제연구.4(2), 서울: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pp.385~414
- 김명수(1993), “한국 교사교육의 투자 회수율에 관한 비교 관점”, 교육행정학연구.11(2).
- 김명수(1998), “인적자본론”, 교육학백과사전, 서울: 하우동설, pp.2154~2158.
- 김신일(1995),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영철(1998), “교육과 경제성장”, 교육학백과사전, 서울: 하우동설, pp.395~402.
- 김용기, “종속이론의 구조와 비판”, [Online] world wide web <http://www.kyungnam.ac.kr/ebrm/sostudy/1집>.
- 김정희(1997),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 대학생의 인지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희(2002) 인적자본 투자의 경제적 효과와 인지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천기(1993), “보울즈와 진티스의 포스트 마르크스주의로의 전환과 신교육이론: 새로운 패러다임적 전환”, 교육학연구, Vol.31, no. 5, 서울: 한국교육학회, pp.195~220.
- 박래영(1983), 교육산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종명(1999), 인적자본투자가 한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양진건(2002),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제주고등교육의 재구조화”, 제주대학교 사범대학·교육과학연구소, pp.235~257.
- 양진건(2002),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교육 특화전략”, 제주발전연구 제6호, 제주 발전연구원, pp.31~51.
- 유현숙(2001),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학교 교육의 기능”, 교육개발 제9·10월호,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pp.34~39.

- 윤정일(1998), “교육과 노동시장”, 교육학백과사전, 서울: 하우동설, pp. 415~430.
- 이근영(2001),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1), OA논문집 제6권 제 3호, 서울: 한국OA학회, pp.122~129.
- 이상윤(1999), 인적자본과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시립대학교 대학원.
- 임천순(1990), “교육투자의 생산성과 경제효과 분석의 이론적 접근”, 교육행정학 연구 8(1), pp.147~169.
- 임천순(1998), “교육생산성”, 교육학백과사전, 서울: 하우동설, pp.626~635.
- 정일환(1996b), 「교육과 발전패러다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주철안(1998), “교육투자정책과 교육기획”, 교육학백과사전, 서울: 하우동설, pp.785~791
- 최강식(1997), “교육이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제 6권, 서울: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pp.229~257.
- 최승현(2000), 경제성장에 대한 인적 자본의 영향 분석 - 교육의 기여도 측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한유경(1992),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교육, 교육투자의 확대 논리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황홍규(2002), “왜 국가전략분야 인력양성인가”, 교육마당21, pp.34~37.
- 교육소식지 제 91호, “경제학자에게.”: 2002년 12월20일.
- 한라일보, “교육은 교육논리로.” : 2003년 4월 15일.
- Becker, G. S. (1964). Human Capital: A Theoretical to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N. 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_____ (1975). Human Capital :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2nd ed.). Princeton.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62). Investment in Human Capital :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5). (Supplement : October).
- Blaug, M. (1976). The Empirical Status of Human Capital Theory: A Slightly

- Jaundiced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4 (September).
- Bowles, S. (1972). Schooling and Inequality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0 (Supplement :May- June).
- Bowles, S. and H. Gintis, (1975). The problem with human capital theory: a Marxian critique. *American Economic Review*. 65 (May).
- _____ (1976).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 Educational Reform and the contradictions of economic life*. New York: Basic Books. Inc.
- Cohn, E. and T. G. Geese,(1990). *The Economics of Education*.(3rd eds.). Elmsford. New York: Pergamon Press. Inc.
- Denison, E. F. (1967), "Why Growth Rates Differ: Postwar Experience in Nine Western Countries. Washington D.C. : The Brookings Institution.
- Leslie, L. L. and Brinkman, P. T. (1988). *The Economic Value of Higher Education*. New York: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 Mincer, J. (1962). On-the-job training: Costs, returns and some implic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5) (Supplement: October).
- _____ (1974). *Schooling, Experience and Earning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_____ (1978). Family Migration Decis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6(October).
- Psacharopoulos, G.(1973). *Returns to Education: An International Comparison*. San Francisco: Jossey Bass, Inc.
- Psacharopoulos, G. and Woodhall M.(1985). *Education for Development : An Analysis of Investment Choic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chultz, T. W. (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1(March).
- _____ (ed.) (1962). *Investment in Human Beings*. Chicago, Illinoi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olfe, B. L. (1995), "External Benefits of Education", in Carnoy, M.(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conomics of Education*, (1st ed.), Oxford: Elsevier Science, Ltd., pp.159~163.

<Abstract>

**A Study on Teachers' Recognition of Economic Effects of
Educational Investments**

Hyun, Kum-Soon

Educational Administr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Jin-G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eachers' thinking on the economic effects of educational investments, with an interest to emphasize the utility and importance of investments on education.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survey research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eachers' recognition of the economic effects of educational investments. A 28-item questionnaire was designed by the researcher and academic advisor, which was to identify teachers' general perception toward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al investments over the 5 domains of human capital theory, critical theory, effects on economic growth, effects on income increase and distribution, and effects on external benefits.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620 teachers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in Jeju and 560 of them were statistically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3.

First, teachers positively recognized the economic effects of educational investments.

Second, teachers also positively accepted the fact that educational investments improve the level of national income with the production of social wealth and income increase.

Third, teachers believed that educational investments are helpful for solving social problems rationally, promoting social welfare, and stabilizing politics and economics.

The results suggest that rational distribution of national funds and fair investment should be done especially for public education to make more creative and productive human capital, which is believed to be one of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Jeju to be successful as an international free city.



<부록> : 석사학위논문 설문지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연구

지도교수 양진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현금순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각종 업무로 바쁜 시기에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얻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교육은 개인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의 상승을 가져오는 데 기여하게 되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경제발전을 가져오게 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료는 연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3. 2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전공 현금순 드림

* 해당란에 √표를 해주십시오.

1. 학교 급별 : ① 초등학교 () ② 중학교 () ③ 고등학교 ()
2. 성 별 : ① 남 () ② 여 ()
3. 경 력 : ① 10년 미만 () ② 10년 이상 ~ 20년 미만 ()
③ 20년 이상 ~ 30년 미만 () ④ 30년 이상 ()
4. 학 력 : ① 대졸(사범) () ② 대학원졸(재) ()

※아래의 항목은 고등학교만 표시 해주십시오.

5. 학교 계열별 ① 실업계 () ② 인문계 ()

* 응답요령 : 각 문항마다 선생님께서 평소 느끼고 생각해 온 견해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1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2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한다.					
3	학교교육은 평등한 사회구조를 가져오는데 기여한다.					
4	취업은 개인의 능력이나 업적보다는 학위 소유 여부나 졸업장에 의해 결정된다.					
5	서구적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의 우월감은 사회발전에 오히려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6	교육투자는 지식의 축적과 재생산을 통하여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꾀하게 함으로써 경제성장에 중추적 기능을 한다.					
7	학교교육의 주된 기능은 기존의 사회질서를 정당화시키는데 있다.					
8	교육은 노동의 생산적인 질을 향상시킨다.					
9	교육투자의 가장 주된 동인은 투자비용에 대한 경제적 회수에 있다.					

번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10	학교교육은 사회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수 불가결하다.					
11	미래에 기대되는 보다 나은 경제적 수입을 위해 교육에 대해 투자를 한다.					
12	상급 학교의 취학률은 경제성장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					
13	학력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14	자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선진국의 교육이론과 실제를 도입·적용해야 한다.					
15	학교교육은 문화적 동질성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16	교육은 사람들의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함양시키는데 기여한다.					
17	교육투자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소득과 고용을 높이면서 사회적 부의 증식에 공헌한다.					
18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는 사회 전반의 복지를 향상시킨다.					

번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19	교육에 대한 투자는 노동자 개개인의 소득 증가에 기여한다.					
20	개인적 차원에서 장래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에 대해 투자를 한다.					
21	학교교육의 주된 기능은 직업에 충원하기 위해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다.					
22	경제발전을 위해 숙련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23	국가의 교육투자가 많을수록 보다 많은 국민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되어 그 결과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24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받지 않은 다른 사람과 주위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으로부터 받는 혜택과 편익을 제공해준다.					
25	학교교육은 생산성과 소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원천이다					
26	교육은 사회 전반적인 문제해결과 정치·경제 체제 제반에 대해 안정을 유지하게 해준다.					
27	교육에 대한 투자는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적 부와 소득의 증대를 가져온다.					
28	학교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취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					